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6호 HYUNBULNEWS.COM 2026년 2월 11일(음력 12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통도사 자장매 '꽃망울'…성큼 다가온 봄 입춘이 지나며 남도에는 봄이 성큼 다가왔다. 양산 통도사의 홍매화, 일명 '자장매'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자장매'는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의 법명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매화는 '청빈'을 상징한다.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梅一生寒不賣香)"는 조선 중기 문신 신흠의 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기품있는 삶을 추구하는 매화의 이미지는 자장 율사가 강조한 지계 정신과도 맞닿는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 제공=통도사

불교 '신뢰도 최고' 영향력은 '과제'
국민 치유 위한 '선명상' 대안 주목

조계종연구소, '한국불교 인식조사' 발표

만19세 이상 2034명 조사
국민 54% 불교 신뢰 '1위'
영향력은 개신교 절반 수준
기대 · 현실 간극…고민 필요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불교'를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은 높은 신뢰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 불교가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인식도 함께 확인됐다. 국민들이 불교에 기대하는 역할로 '위안과 치유'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조계종이 추진 중인 '선명상 대중화'가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을 회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는 2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인의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불교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025년 9월 10부터 26일까지 2주간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34명에 대한 표본조사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불교를 선택한 응답이 54.7%로 절반을 넘어섰다. '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를 묻는 항목에서 불교는 29%의 선택을 받으며 개신교 응답률(50.6%)의 절반에 그쳤다.

불교가 도덕성과 청정성, 수행 전통 등에 대해서는 '착하고 무해한 종교'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대사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힘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3면에 계속

임은호 기자

레시피부터 OTT까지…'사찰음식'이 뜬다

SNS에 선재 스님 레시피 유행
웨이브, '공양간의 셰프들' 론칭
KBS, 정관 스님 조명 다큐 제작
사업단은 뉴욕서 사찰음식 홍보
동국대 사찰음식연구소 개원도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착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햄 없이도 이런 맛이? 선재 스님 두부김밥.' '안성재 님도 감탄한 선재 스님표 국수!'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섬네일 제목들이다.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의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 보는 숏폼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불살생·절제·생명존중 등의 철학을 담고 있는 사찰음식이 젊은 층에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증명하는 한 끼'로 해석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처럼 사찰음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자 OTT플랫폼과 주요 방송사에서는 사찰음식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웨이브(Wavve)는 신규 프로그램 '공양간의 셰프들'을 통해 사찰음식 명장 스님 6인의 공양(供養) 과정을 깊이 있게 담아낸다. 선재·정관·계호·적문·대안·우관 스님이 공양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을 따라가며 음식에 담긴 철학과 수행의 의미를 조명하는 푸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총 4부작으로 구성된 '공양간의 셰프들'은 2월 13일 전편 공개된다.

KBS는 설 연휴를 맞아 '철학자의 요리'를 방영한다. 약 3년간 정관 스님이 만든 사찰음식의 정수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요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철학이자 수행이 되는지, 그 깊고 순수한 과정을 따라간다. 2부작 프로그램으로 2월 16, 17일 방영된다.

뉴욕에서는 한국불교 사찰음식을 알리는 행사가 열린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뉴욕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코리아 온 스테이지 인 뉴욕'에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이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뉴욕 현지에서 사찰음식 강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정관 스님이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인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와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사찰음식의 조리 원리와 그 속에 담긴 불교 철학을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음식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기반을 놓는 작업도 이뤄진다. 문화사업단은 오는 7~8월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음식학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부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사찰음식 체험 및 만찬 행사를 추진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올해에는 사찰음식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전략 연구를 진행하며 초석을 쌓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찰음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연구소인 '동국대 사찰음식치유의학연구소'도 최근 개소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임윤정 교수(동국대일산불교병원 소화기내과)가 초대 연구소장을 맡아 향후 사찰음식을 의과학·영양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윤정 연구소장은 "현대인들은 초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식습관이다.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올바른 식문화가 사찰음식"이라며 "사찰음식이 만성질환과 암을 예방하고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 한다. 나아가 사찰음식을 활용한 예방 지침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상품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와 국내 식품업계 1위 CJ제일제당이 손잡고 '사찰식 왕교자'를 한정 출시했다.

도반HC는 "사찰음식이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건강한 식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음종·본지, 조세이 유해 수습 '맞손'

2월 2일 상호 업무협약 체결
연중 조세이탄광 캠페인 전개
유해 수습 지원기금 모연키로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관음종(총무원장 대행 도각 스님)과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손을 맞잡았다.

관음종과 현대불교신문은 2월 2일 서울 낙산묘각사에서 '조세이탄광 유해 수습 지원 및 사회적 공감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을 체결하고 희생자 유해 수습 조사 지원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총무원장 대행 도각 스님을 대신해 총무부장 홍경 스님이, 한명우 대표이사를 대신해 여수령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현재 일본 현지에서 진행 중이 유해 수습 조사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바다 아래 남겨진 이름들-조세이탄광 유해 수습 지원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대불교신문은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관련 기획기사, 조사 상황 관련 취재기사 등과 SNS 홍보를 통해 여론을 이끌 계획이다. 관음종은 종단 산하 사찰 및 신도를 대상으로 캠페인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중일 기자

사 령
명)편집국 취재부 부장 임 은 호
편집국 취재부 차장 김 내 영
2026년 2월 1일부

불기2570(2026)학년도 대한불교조계종 인가 전국 신도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 안내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전국의 종단 인가 불교대학을 통해 신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교대학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
국제선센터불교대학 02-2650-2212
극락사불교대학 02-434-1717
길상사불교대학 02-3672-5945
달마사불교대학 02-813-7425
대성사불교대학 02-583-1475
도선사불교대학 02-993-3161
법련불교대학 02-733-5322
봉은불교대학 02-3218-4823
불광불교대학 02-417-2551
수국사불교대학 02-356-2001
약사사불교대학 02-2662-2551
영화사불교대학 02-444-4321
우담바라불교대학 02-3411-8104
조계사불교대학 02-768-8580
진관사불교대학 02-359-8410
호압사불교대학 02-803-4779
화계불교대학 02-997-6469

경기
관음사 수자타불교대학 031-533-0741
법륜사불교대학 031-332-5703
보현선원 보현불교대학 031-252-1080
봉국사불교대학 031-755-0329
봉녕사 심우불교대학 031-256-4127
봉선사불교대학 031-529-1950
불국산연화불교대학 031-840-0388
소림사불교대학 032-612-5900
용주사불교대학 031-226-3488
정심사불교문화대학 031-791-7732
청계사불교대학 031-426-2318
회암사불교대학 031-866-0355

인천
경인불교대학 032-427-8400
나란다불교대학 032-442-9910
영응사 선재불교대학 032-567-5277
인천명상불교대학 032-577-5108
전등사불교대학 032-937-0125

강원
강릉불교대학 033-643-2985
동해불교대학 033-534-7661
법웅사불교대학 033-742-2701
신흥사불교대학 033-638-4807
용연불교대학 033-647-1234
원주불교대학 033-746-0248
월정사불교대학 033-339-6800
청평사불교대학 033-244-1095

대전, 세종
대전불교대학 042-222-3315
백제불교문화대학 042-471-8214
영평사불교대학 044-857-1854
통도사대전불교대학 042-531-1332

충남
각원사불교대학 041-561-3545
개심사불교대학 041-688-2256
내포불교대학 041-662-7717
마곡사불교대학 041-841-6221
문수사 행복불교대학 041-663-3925
서광불교대학 041-664-2001
세원사불교대학 041-934-1434
수덕사불교대학 041-330-7700
신원사불교대학 041-852-4230
영랑사불교대학 041-353-8053

충북
법주사불교대학 043-544-3616
석종사불교대학 043-854-4505
중원불교대학 043-745-7788
청수사 보현불교대학 043-218-9995
충북불교대학 043-273-2159

대구
경북불교대학 053-792-1353
관오불교대학 053-471-6640
대구불광불교대학 053-656-6034
대구불교대학 053-256-3725
마하야나불교대학 053-629-0408
법왕불교대학 053-766-3747
용연사불교대학 053-616-8846
한국불교대학 053-474-8228

부산
내원불교대학 051-242-0691
마에뜨리아불교대학 051-271-2774
반야불교대학 051-701-5655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051-866-7277
복천사 아난다불교대학 051-417-5551
여래사불교대학 051-466-4080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 051-851-3355
홍법불교대학 051-508-0345

경남
경남불교대학 055-552-5111
관룡사불교대학 055-521-1747
구룡불교대학 055-294-3279
금강사불교대학 055-636-8634
대광불교대학 055-545-9595
동림불교대학 055-325-4008
등구사불교대학 055-963-5933
밀양불교대학 055-354-4464
봉림불교대학 055-237-2266
선학사 해인불교대학 055-762-0108
성주사불교대학 055-262-0108
쌍계사 진감불교대학 055-883-1901
안국사불교대학 055-255-1080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율하선원불교대학 055-321-0772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055-275-3222
진주불교대학 055-759-1080
통도사불교대학 055-384-8380
해인사불교대학 055-934-3006
해인사함양불교대학 010-4541-1142
행복한불교대학 0507-1342-6510

경북
구미불교대학 054-453-0571
금강불교대학 054-632-3767
기림사불교대학 054-744-2292
김천불교대학 054-429-1700
남화사불교대학 054-452-6568
대승불교대학 053-802-4080
대원불교대학 054-858-2630
문경불교대학 010-7942-6134
보경사불교대학 054-262-1117
상주불교대학 054-534-6331
예천불교대학 010-2515-0682
은해사불교대학 054-335-3318
의성불교대학 054-833-2938
축서사불교대학 054-672-7579
포항불교대학 054-247-4688

울산
백양사불교대학 052-243-8712
울산불교교육대학 052-266-3318
정토불교대학 052-258-9944
지장정사불교대학 052-256-3552
황룡사불교대학 052-211-1950

광주
광주관음사불교대학 062-223-7666
무각사불교대학 062-383-0107
선덕사 무등불교대학 062-263-4660

전남
강진불교대학 010-8837-8557
다보사불교대학 061-334-4201
목포불교대학 061-244-1489
백양사불교대학 061-392-7502
불일불교대학 061-755-0107
불회사불교대학 061-337-3440
영암불교대학 061-473-5122
용흥사불교대학 061-382-0571
해남불교대학 061-534-5502
화엄사 선재불교대학 061-783-7600

전북
남원불교대학 070-8881-0108
선운사불교대학 063-561-1422
수현불교대학 063-224-4441
이리불교대학 063-854-1578
정읍불교대학 063-536-8741
참좋은우리절불교대학 063-236-6633
화엄불교대학 063-277-3497

제주
동법사불교대학 064-783-2532
법화사불교상담대학 064-738-5225
신제주불교대학 064-746-0108
제주관음사불교대학 064-722-6830

해외
LA불교대학 teaartedu@gmail.com
달라스보현불교대학 soonpark008@gmail.com

온라인
국제포교불교대학 02-722-2206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 070-8680-9288

※ 각 불교대학의 학사 기간, 교과과정, 입학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주소는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포교→신도등록 및 교육→<불교대학 주소록>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 사회적 영향력 확대 역량 집중”

불교리더스포럼 7기 대표 임명장
“사회적 역할 강화”에 한목소리
연찬회 갖고 활동 방향 모색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불교리더스포럼 총재 진우 스님은 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리더스포럼 7기 상임대표단 및 공동대표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은 임명식 후 기념촬영 모습.

불교리더스포럼 총재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새롭게 구성된 7기 대표단에게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리더스포럼 7기 상임대표단 및 공동대표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불교리더스포럼은 종단은 물론 대사회적으로 각 분야 대표성을 지닌 불자들이 함께하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최근 ‘한국인의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불교가 신뢰도는 종교 가운데 1위를 기록했지만, 국민적 영향력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역량을 쏟아 포교 전법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주 소통하면서 불교가 사회적 화합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7기 불교리더스포럼은 기존 경제분과를 3개로 확대 개편하고 고문단과 지도위원단 등 지도기구를 강화해 조직 확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총 15개 직능분과를 갖추고 있으며 23개 지역교구 회원 등 약 1080명이 활동하고 있다.

상임대표는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상임부대표는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맡았다. 정원주 회장은 부친상으로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

공동대표로는 하정우 청와대 불자회장,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이귀남 제61대 법무부 장관(법조분과 대표), 육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경제1분과 대표), 김성섭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경제2분과 대표), 이혁렬 에스폴리텍 대표이사(경제3분과 대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공공분과 대표),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사회안전인권분과 대표), 이용식 문화일보 주필(언론분과 대표),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예술분과 대표),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보건의료분과 대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금융분과 대표),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체육분과 대표), 구홍모 전 육군참모차장(군분과 대표),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남북분과 대표),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환경분과 대표), 윤재웅 동국대 총장(교육분과 대표),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부회장(대외협력분과 대표), 이연화 조계종 여성불자회 수석부회장(직능단체분과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상임지도위원에는 김진태 제40대 검찰총장이, 종단·청불회 소통자문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촉됐다. 총재특보는 김종필 내일신문 편집국장 이사(소통), 윤재연 블루원 대표(여성), 신상국 아가방컴퍼니 대표(국제)가 맡았다. 감사에는 이정하 하나손해보험 상임감사와 김정만 법무법인 지행인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날 이기흥 상임대표는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대표단이 힘을 모아 한국불교 발전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교적 가치가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7기에 새롭게 합류한 공동대표들도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포교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김성섭 경제2분과 대표는 “불교가 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혁렬 경제3분과 대표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불자로서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리더스포럼이 내실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웅 교육분과 대표는 “그동안 대학 교육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유치부부터 중등교육,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교교육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표단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불교를 올바르게 알리며 사회 속에서 불교의 역할을 넓혀 나가겠다”며 조계종이 추진 중인 ‘선명상 대중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임명식 이후 불교리더스포럼 7기 대표단은 연찬회를 갖고 향후 비전과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화사 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선안 스님

184표 중 95표 얻어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안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선안 스님은 2월 5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열린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투표자 184명 가운데 95표를 얻었다. 덕유 스님은 7표 차이인 88표에 그쳤다. 무효표는 1표다.

이번 보궐선거는 동화사 주지로 선출된 선광 스님의 사직에 따라 치러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은 2월 2일 242명으로 선거인단을 최종 확정했고, 이날 선거에는 184명이 참여했다.

선안 스님은 “선거를 준비하며 구석구석 다니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앞으로 교구 발전과 대중 외호에 힘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선안 스님은 현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7년 수계했다. 호법부 상임감찰, 총무원 사업국장, 거제 신광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구 임휴사 주지를 맡고 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조계종·명진 스님, 대법원 상고 안한다

2월 3일 “종단 화합 기틀 마련”
명진 스님 “과거 종단 비판 유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명진 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호간 합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마무리하고 종단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계종은 2월 3일 대변인 묘장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승가의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명진 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 오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계종은 종단에 대한 비방과 과거 종단 자산이었던 옛 한국전력 부지 환수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를 사유로 명진 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명진 스님은 과거 종단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했었던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무원 역시 종단 자산 환수 추진 사실을 오인했다”고 인정하며 명진 스님이 오랜 기간 종단 내외에서 겪은 어려움과 고초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이후 종단은 승가 본연의 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종헌과 종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중앙선관위, 은해사 주지후보 소청 심사 또 연기

2월 9일 재논의 · 결정하기로
의견 청취–증인 심문 진행



은해사 주지후보 선출과 관련해 덕관 스님이 제기한 선거소청 심사가 또다시 연기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중앙선관위)는 2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428차 회의를 열고 2시간이 넘는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소청 심사 일정을 2월 9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위원장 태성 스님을 비롯해 위원 진산·선문·탄정·혜광·태설·득우·무일·유승 스님 등 9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소청인 덕관 스님과 피소청인 성로 스님을 직접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했다. 또 호법부 입회하에 덕관 스님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증인 A스님은 “선거 당시 (성로 스님의 투표지에) 빨간 도장이 찍힌 것을 봤고, 본 그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반면 성로 스님 측은 “선거 과정에서 투표지 공개는 없었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스님 2명의 서면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관련자들의 의견 청취를 마친 중앙선관위원들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과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두고 장시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 태성 스님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다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종단 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 심사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9일 회의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경선’

현우 · 석두 스님 입후보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제5교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덕 스님)에 따르면 2월 5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영동 영국사 주지 현우 스님과 전 총무원 총무국장 석두 스님이 입후보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원경 스님의 직영사찰 강화 보문사 주지(관리인) 임명에 따라 치러지는 것이다.

보궐선거는 2월 26일 오후 1시 법주사 대방에서 실시된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는 2월 12일 회의를 열어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2월 23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6학년도 신(편)입생(학점은행제)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료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 제출서류 | ◈수료과정 :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일정 | 2026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6년 3월 첫째주 3월 3일 화요일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영산재보존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3. 출가승려(법계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동방대학 2년졸업후 옥천범음대학 편입 하여 4학년 졸업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회 장 조현성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향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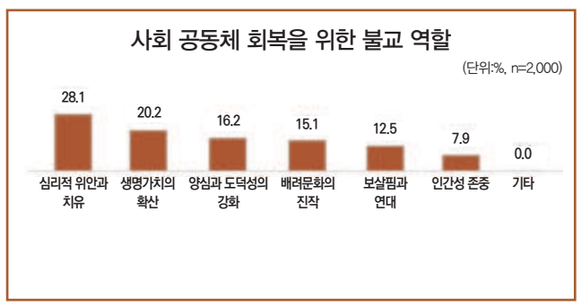
선명상, 치유 돌봄 영역 공공성 구현이 핵심

2025년 한국불교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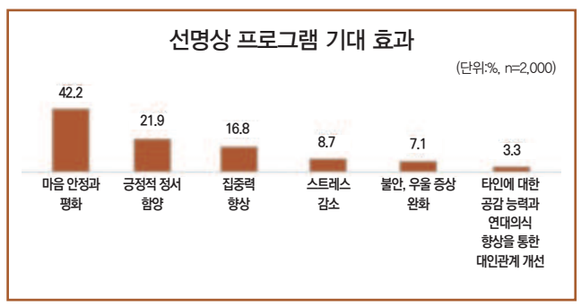
불교 기대 역할 1위 '위안과 치유'

'선명상' 프로그램 대중화가 관건

'마음치유 솔루션' 브랜딩으로 접근



한국 사회의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불교가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은 '심리적 위안과 치유'가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명가치의 확산'(20.2%)이 뒤를 이었다.



선명상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 효과는 '마음 안정과 평화'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정서 함양'(21.9%), '집중력 향상'(16.8%)이 뒤를 이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연구소가 공개한 '2025년 한국불교 인식조사' 결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들이 불교에 기대하는 역할이다.

조사 결과 '한국 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불교가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이 '심리적 위안과 치유'(28.1%)로 꼽혔다. 갈등과 불안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국민들은 불교가 개인의 고통을 보듬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치유자'로서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다. 이어 '생명가치의 확산'(20.2%)과 '양심과 도덕성의 강화'(16.2%) 등도 주요 기대 역할로 꼽혔다.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돌보는 역할에 집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명상 대중화'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앞서 조계종은 선명상을 특정 종교 수행에 국한하지 않고 현대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마음 훈련이자 생활 수행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다수가 불교에 기대하는 '위안과 치유'의 기능을 선명상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는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읽힌다.

보고서는 선명상에 대한 인식과 수용 가능성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선명상 프로그램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2%가 '알고 있다'고 답해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 않았으나, 선명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경우 호감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68.1%에 달해 높은 수용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 신자(78.1%)·고연령층·고학력층을 중심으로 인식이 비교적 높게 형성됐다.

특히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명상과 마음챙김에 대한 관심이 높고, 마음 안정과 평화(42.2%), 긍정적 정서 함양(21.9%), 집중력 향상(16.8), 스트레스 감소(8.7%) 차원에서 선명상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불교가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공공재로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선명상을 단순히 수행법이 아닌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는 '마음 치유 솔루션'으로 브랜딩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선명상 대중화가 곧바로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과제로 남는다. 조사에서는 불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부처님(22.6%), 사찰(19.8%), 스님(16.8%) 등 외형적으로 구분되는 1차적 속성에 치우쳐 나타났다. 반면 자비롭다(5.1%) 등의 질적 속성이나 명상(4.1%) 등 종교 활동을 떠올리는 응답자는 크게 적은 편이었다.

불교 이미지의 형성과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로 수행과 교리를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고 일상 속 실천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선명상 역시 일부 계층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이번 결과는 불교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로 불교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지만 그 신뢰가 사회적 영향력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한국불교의 역할이 분명해진 만큼 선명상을 비롯한 치유와 돌봄의 영역에서 불교의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이번 인식조사에 대해 "우리 불교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고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한 연구 결과"라고 설명하며 "향후 다양한 주제로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큐사인 회원들이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하경 스님의 지도 아래 톳 · 버섯 볶음잡채를 만들고 있다.

청년 성소수자들, "차별 없는 세상" 발원

큐사인 · 사노위, 1월 30일 조계사

'도란도반' 불교체험으로 진행

사찰음식 만들기도 "포용성 느껴"

"차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부모님 건강과 가족의 만사형통,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원만히 풀리길 바랍니다."

청년 성소수자들이 새해 소망을 담아 조계사 부처님 앞에 초와 향을 올렸다.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대표 파람 활동가) 회원들은 1월 30일 서울 조계사 일원에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도란도반'을 진행했다.

'도란도반'은 큐사인의 2026년 첫 월례모임으로, 새해를 맞아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새해 소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연등 만들기 △사찰음식 체험 △초·향 공양 올리기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공동 주관해 눈길을 끌었다. 큐사인 측은 불교가 차별과 혐오보다 포용과 자비를 중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점에 주목해 첫 월례모임으로 불교체험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노위를 통해 행사 협조를 요청했고, 사노위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이번 프로그램이 성사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파람 활동가는 "할머니가 불자여서 불교는 익숙했지만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한 건 처음"이라며 "특히 불교계가 성소수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포용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수덕사, 2기 선출가학교 …"나 찾는 열흘"

4월 1~10일, '열흘간의 출가살이'

온라인 등서 3월 20일까지 접수

'출가절벽' 대응책으로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단기 출가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2기 선출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수덕사는 4월 1~19일 경내에서 '수덕사 제2기 단기 선출가학교-나를 찾는 열흘 간의 출가'를 실시한다.

'단기 선출가학교'는 스님이 되기 위해 처음 출가했을 때 겪는 행자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교구본사가 주관하는 만큼, 단순 사찰체험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수덕사는 열흘 간의 출가살이에서 대중생활이 가능한 17~65세 남녀 각 10명, 총 20명을 선발한다. 3월 20일까지 수덕사 홈페이지(www.sudeoksa.com)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79)과 이메일(sudeaksa@hanmail.net)로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과 건강검진서도 동봉해야 한다.

1차 서류 합격자는 3월 23일 발표하며 전화 및 화상으로 2차 면접 후 최종합격자는 3월 26일 발표한다. 심사 기준은 심신이 건강하고 출가학교 참여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참가비는 40만원이며 고등학생·대학생은 전액 무료. 041-330-7788

임은호 기자

120돌 동국대, 인도 문화교류·학술탐방 원만회향

1월 20~30일 9박 11일 간

성지 순례, 교육기관 교류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하는 첫 공식 행보로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 '인도 문화교류 활동 및 학술탐방'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회향했다. 탐방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서울·WISE캠퍼스 불교동아리 대표 학생 등 총 52명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1월 21일 인도 현지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보드가야, 라즈기르, 바이샬리, 쿠시나가르, 룸비니, 쉬라바스타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주요 성지를 순례했다.

학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삼아, 학생으로서 인성의 완성은 물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

이번 탐방에서는 단순 순례를 넘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현지 교육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도 진행됐다. 엄어와와 보광초등학교, 수자타아카데미를 방문해 한글교육과 전통놀이 체험, 체육활동을 진행했으며 카사피아, 다르파리 고등학교에서는 K-푸드체험 및 K팝 공연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했다. 또한 나란다대학과 가우땀 대학에서는 동국대 건학 120주년 홍보 및 글로벌 학생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쿠시나가르 열반당에서 동국대 방문단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영축산에서 방문단은 일출과 함께 고요한 명상에 들었으며 이 자리에서 돈관 스님은 소참 법문을 설했다. 돈관 스님은 "이 순간을 잊지 말고 어떤 곳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어느 곳에 머무르더라도 '나는 주인공이다'를 잊지 말아라"고 설했다.

윤재웅 총장은 회향사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깨닫고, 귀국 후에도 이웃을 위해 소리 없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어 달라"며 한국 불교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향한 학생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회향식은 방문단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회향 발원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신중일 기자

"제대로 아는 불교, 올바르게 아는 불교"

2026년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기본반 신입생 모집

입학일 3월 8일 (일)

요 일	구 분	시 간	과 목	장 소
목요일	주간	오전10시 ~12시	사찰예절 기초교리 부처님 생애, 보현행원 반야심경, 천수경(다라니) 초발심자경문 다양한 특강들	선문화관 대강당
	야간	저녁7시 ~9시		양 정 교육관

○ 교육국장 스님이 초중고 및 고3 아이들의 학업성취를 위한 축원을 해드립니다.


각전스님 (범어사 교육국장)


명인스님 (前 고운사 교무국장)


도명스님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일민 스님 (백련사 부다가야선원 선원장)

38년 전통의 신도전문교육기관

2026년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경전반 수강생 모집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오전10시 (선문화관)	금강경오가해 (각전스님)	능엄경 (원창스님)	원각경 (지원스님)	불교대학 기본과정(주)	법화경 (무애스님)
오후2시 (선문화관)	53 민화 (서연스님)	염불선 (정목스님)	중국 선문화 (법지스님)		
		육조단경 (도산스님)			
		민화 (서연스님)			
저녁7시 (양정관)	금강경오가해 (각전스님)	육조단경 (도산스님)	원각경 (지원스님)	불교대학 기본과정(야)	법화경 (무애스님)

○ 금정불교대학은 전통 강맥 및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과정에 있는 강사스님들이 강의합니다.


각전스님 (범어사 교육국장)


법지스님(중국선문화) (조계종 교육아사리)

무애스님(법화경) (조계종 교육아사리)

원창스님 (범어사 율원장)

정목스님 (양산 정토원 주지)

도산스님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지원스님 (범어사 승가대학 강사)

서연스님 (범어사 복지국장)

○ 교육국장 스님이 초중고 및 고3 아이들의 학업성취를 위한 축원을 해드립니다.

각전스님 (범어사 교육국장) 명인스님 (前 고운사 교무국장) 도명스님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일민 스님 (백련사 부다가야선원 선원장)

승가원 30년, 장애인 불교복지 견인하다

중승대, 소쩍새마을 인수하며 시작
장애아동 삶의 질 향상 서비스 제공
지역 전반 자비복지 실천 법인 성장
30년 맞아 함께 이루는 희망 슬로건
맞춤형 돌봄 등 6개 전략사업 추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996년 문을 연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승가원행복마을 전경.

1996년 문을 연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현각 스님)이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온 30년은 복지가 제도이기 이전에 '사람의 일'임을 증명해 온 시간이자 불교의 자비 정신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여정이었다.

승가원은 1995년 중앙승가대가 미인가 장애인시설이었던 소쩍새마을을 인수·운영하면서 1996년 2월 6일 설립됐다. 설립 이후 미인가시설이었던 소쩍새마을을 2006년 이천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으로 새롭게 건립, 이전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1998년 중증장애아동 거주시설인 상락원을 서울 성북구에 개원했고 2019년에는 인근에 승가원행복마을을 완공, 장애아동들이 한옥으로 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총 15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승가원이 걸어온 30년은 한국 사회 장애인복지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장애가족과 지역사회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확장해 온 것이다. 2007년부터 장애인식개선 어린이 나눔교육을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장애바로알기 사업을 진행하며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에도 주력해 왔다.

체계적인 후원 시스템과 모금 및 복지사업 운영을 기반으로 대내외적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행복나눔캠페인, 사찰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KEEPGOING42 기부런과 하이킹 등의 모금사업과 온라인 모금사업, 후원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췄다.

승가원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승가원 30년-장애인의 꿈을 이루는 미래, 함께 이루리 희망 피우리'를 슬로건으로 6개 분야의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거주시설 환경개선을 넘어 자립지원주택을 운영, 마을공동체 구성 등 거주시설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는 공간을 설계, 장애인생활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농촌형 직업지원사업 모델 구축 및 도시형 직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맞춤형돌봄시스템 마련이다. 지역사회에 자립한 장애가족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활치료, 문화활동 및 후견 사업을 통해 장애가족이 자립한 이후에도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네 번째는 장애바로알기사업 확대다. 캠페인 서포터즈 구성, 공모전 확대, 전문교육 시스템 장립 등 장애인들이 자립해 나가는 지역사회가 장애친화적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장애복지·모금·후견전문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각 영역별 전문가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을 탄탄하게 받쳐줄 공감·가치공유 중심의 모금사업을 추진한다.

승가원 측은 "단계별 발전계획 속에서 사회복지사업 현장의 핵심과제들을 실천해 나가고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법인으로 성장하겠다"면서 "또 다른 30년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조계종복지재단, 불교계 연대 위한 '협의회' 출범한다

2월 3일,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전국서 '나는 절로' '청년밥심'
도륜 스님 "새로운 100년 진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산하 복지법인을 포함한 불교계 복지기관들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조계종 불교사회복지협의회가 공식 발족된다. 조계종 산하 사회복지법인 간 교류와 협력 강화는 물론 불교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제안, 연대사업 전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은 2월 3일 서울 한국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진행될 사업을 공유했다.

재단은 올해 '조계종 불교사회복지협의회'를 발족한다. 조계종 산하 사회복지법인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한 불교적 가치 확산과 법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재단은 불교사회복지의 가치에 기반한 종단 차원의 정책 논의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환경·복지제도 변화로 개별 법인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 공동 대응 체계 요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재단은 12월 2일 개최될 제28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발족식을 갖는 것을 목표로 상반기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목적과 주요 기능, 조직 구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불교사회복지대상'(안)도 제정한다.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국회의장 공로장 등은 유지하되 재단 대표이사 표창, 총무원장 표창 대신 불교사회복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신설한다.

재단은 대상을 매해 불교사회복지의 상징 인물에게 수여하고 매년 평균 30명에 달하던 수상 인원을 적절히 조정해 상의 권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재단의 다양한 사업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된다. 수도권을 넘어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다.

미혼 남녀의 만남과 템플스테이를 접목해 '힙'하고 '핫'한 불교 아이콘이 된 '나는 절로'는 전국 지역에서 참가 인원을 선발해 해당 지역 사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년밥心' 역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역 사찰을 추가 섭외해 확대 운영하고 대기업 후원처 임직원 봉사자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계해 청년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도륜 스님은 "2026년은 미래를 위한 내실 다지기에 나서 다양한 복지사업들의 기반을 공고히 하도록 마음을 모으겠다"면서 "새로운 30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박무열 불자, 군불교 발전 기금 1000만원



박무열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회장직무대행은 부산 해운정사 신행 스님과 함께 2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군불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박무열 회장직무대행은 현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국군불교총신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 회장직무대행은 "장병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군포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군포교가 더욱 활성화돼 장병들의 마음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내영 기자

종로노인복지관, 3세대 죽음준비교육 시작

2월 5일,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18년 간 이어온 죽음교육 新모델
"전 세대 교육…건강한 사회 발원"
카페 · 장금이 노인일자리 확대


종로노인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하고 공간 구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선다.

종로노인종합지관은 2월 5일 관내 4층 종로마루홀에서 이용자와 지역주민,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 운영목표와 세부 전략을 발표했다.

관장 정관 스님은 2026년 키워드별 주력사업으로 △디지털과 문화 △지속가능일자리 △스마트돌봄 △ESG운영을 제시했다. 디지털과 문화 부분에서는 전 세대가 함께 지속되는 삶의 가치를 깨닫는 공간으로 'Anding 미디어아트센터' 오픈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18년 간 죽음준비교육을 이끈 정관 스님은 간담회에서 이날 3세대 교육 모델로 'Anding 미디어아트센터'는 전 세대가 3D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통해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구성됐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자원확보를 위해 공모를 신청하고 기업 펀드레이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아트 체험관 공간 및 콘텐츠 구성·기획·자문을 위해 전문가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영역별 전문기관과 MOU도 체결한다. 또 앤딩 플래너를 양성, 미디어아트 체험관에서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꾸준히 신경 쓴다. 종로노인복지관은 자체 카페 브랜드인 '플러스 카페'를 4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46명이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으며 카페 4군데에서 년 3억 18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종로노인복지관은 플러스카페의 브랜딩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 브랜드인 '종로&장금이'도 더욱 확장시켜 지속가능 노인 일자리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

비구니회·백천재단, 분황사 보건소 지원

지역민 건강검진 · 의약품 전달
1년간 각각 1200만원 씩 지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와 백천문화재단(이사장 조도성)이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보건소 의료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월 30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2층 회의실에서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보건소 의료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열고 향후 1년간 현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과 보건소 운영 체계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부처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의 취약계층에게 건강 검진 및 의약품을 전달하고 분황사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비구니회의 의료봉사와 의료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더욱 체계화·전문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1년간이다. 전국비구니회와 백천문화재단은 전체 사업 예산의 50%씩을 부담, 각각 12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번 사업에서 보건소 운영과 의료봉사 전반을 총괄한다. 현지 실정에 맞는 운영 모델 개발과 메뉴얼 작성,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또한 매월 초 운영 효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백천문화재단은 매월 공유되는 보건소 운영보고서를 검토하고 재단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용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가 분황사 보건소에 지원을 꾸준히 해왔지만,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자 하는 원력으로 이번 협약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하며 "두 기관의 협력으로 질 좋은 의료지원이 지속돼 부처님 자비정신이 세계에 펼쳐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2월 2일 서울 법룡사 만불전에서 '2025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회향식'을 봉행하고 원만회향을 축하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사, 입춘 기도 회향

2월 4일, 발원문 소전의식
평안 일상 · 가정 행복 발원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새봄을 맞이하는 사부대중의 발원이 조계사에 울려 퍼졌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아 2월 4일 경내 대웅전에서 '입춘 3일 기도 회향식'을 봉행하고 불보살님의 가피 속에 평안한 일상과 가정의 행복이 깃들길 기원했다.

이날 담화 스님은 '온 세상이 태평한 봄날이요, 사방 어디에도 아무런 걱정이 없기를'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특히 스님은 입춘의 '입(立)' 자를 통해 입춘은 단순히 봄이 시작됐다는 의미를 넘어 '내 안의 주인공을 바로 세우는 때'라고 설명했다.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방법으로는 △내 안의 화를 지혜의 빛으로 바꿀 것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넬 것 △부지런히 정진할 것을 제시했다.

법회 후 사부대중은 대웅전 앞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발원문을 봉송하고, 발원불을 태우는 소전의식을 진행했다. 담화 스님을 비롯한 조계사 소임자 스님들은 불자들이 정성껏 작성한 발원문을 불에 태우며 원만성취와 무탈한 한 해가 되길 서원했다.

김내영 기자

차향 속에서 '나'를 만나다

봉녕사 5기 여성출가학교 입재
'행다선 명상' 특화 프로그램도



1월 30일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 육화당.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5기 행자 9명이 다구를 앞에 두고 좌정했다. 출가자의 생활을 경험하는 일정 속에서도, 이날만큼은 '차 한 잔'을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봉녕사만의 특화 프로그램인 '행다선(行茶禪) 명상' 첫 수업이다.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은 "행다선은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만나는 수행"이라며 "이 차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가 곧 수행자의 태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자들이 배운 '불교다례'는 발우공양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립된 생활다례로, 수행과 예경,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다. 적연 스님은 "불교다례는 차가 중심이 아니라 수행이 중심"이라며 "차는 수행을 돕는 방편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행자들은 차수와 합장 등 기본 예법을 익힌 뒤 스님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차를 우리기 시작했다. 한 손으로 다관을 들고 다른 손으로 뚜껑을 누른 채 차를 따르는 순간, 행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온전히 집중했다.

첫 잔을 부처님께 올린 뒤에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차의 빛깔과 향, 온기를 천천히 음미했다. 차 공양 후에는 명상 시간이 이어졌다. 싱잉볼의 울림 속에서 행자들은 차를 마시는 행위가 곧 명상이 되고, 그 가운데 느끼는 감각 하나하나가 수행의 대상이 됨을 느꼈다.

앞서 봉녕사는 1월 29일 제5기 여성출가학교 입재식을 봉행했다. 9명의 행자들은 2월 12일까지 출가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삶의 본래 방향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지 진상 스님은 "출가자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이번 체험이 '발심 출가'라는 아름다운 선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여수령 기자 ·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생명나눔실천본부 2026년 주요 일정

- 3월 정기 이사회 및 총회 …… 3월 13일
- 4월 파크골프 대회 …… 미정
- 5월 전통문화마당 …… 5월 17일
- 6월 천도재 …… 6월 6일
  자선골프대회 …… 미정
- 9월 제17회 생명존중 걷기명상&플로깅 …… 9월 12일
- 10월 임시이사회 …… 10월 1일
  제17회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 10월 17일
- 11월 제16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 11월 14일
  제13회 따뜻한 정나누기 (불우이웃돕기) …… 11월 24일
- 12월 해외지원사업 …… 미정
  종무식 …… 12월 30일

“지역 상생으로 후원자 배가·사회 가치 실현도”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① 2026 생명나눔 이렇게 나아갑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희망등록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 이하 생명나눔)가 올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치로 신규 후원 확대에 나선다. 특히 건강과 가치 소비에 민감한 3040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긍정적인 기부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생명나눔은 2월 2일 서울 본부 사무실에서 ‘불기 2570년 신년 사업 계획 공유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생명나눔은 간담회에서 ‘물들다, 그리고 나아가다’를 주제로 △2026 신규 후원 캠페인 氣-UP(기업), Support U △2026 연간 프로젝트: 별내, 생명나눔으로 물들다 △해외의료 낙후 지역: 국경없는 자비, 희망의 의약품 지원 등 3대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2026 신규 후원 캠페인 ‘氣-UP(기업), Support U’는 후원자층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역 강소 기업에서 생산된 ‘건강주스’를 신규 후원자에게 감사 선물로 증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일방향적 기부에서 벗어나 후원자에게는 건강을, 지역 기업에는 활력을, 환우에게는 희망을 전하는 ‘삼각 상생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생명나눔 측은 건강과 가치 소비에 민감한 30~40대 후원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면 스님은 “나의 건강 루틴이 누군가의 생명 루틴이 되는 긍정적 기부 경험을 제공하고자 아이디어를 냈다”면서 “트렌디한 캠페인 운영을 통해 후원자층의 세대교체 및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불교계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신뢰도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익활동도 이어간다. ‘별내, 생명나눔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걷기명상 및 플로깅(별내 내 문화공간), 연말 불우이웃돕기(소외계층 거주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가족, 청소년, 3040 학부모와 시니어, 취약 계층 등의 참여를 유도해 주민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자체의 행정 지원 및 홍보 협력을 확대해 향후 지역 복지지설 수탁 운영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 “
> **2월 2일, 올해 3대 주요사업 발표**
> **지역 기업 협력 후원 모집 캠페인**
> **30~40대 후원자 모집 확대 기대**
> **남양주 별내 공익 확동 적극 전개**
> **현대불교신문과 글로벌 복지 활동**
> ”

일면 스님은 “필수 의약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해 질병 치료 및 보건 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3년에 걸친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보건 당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향후 의료진 파견 및 시설 보수 등 포괄적 지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생명나눔은 올 한해 동안 △파크골프대회(4월 중) △전통문화마당 참여(5월 17일) △천도재(6월 6일) △자선골프대회(6월 중) △걷기명상(9월 12일) △산사음악회(10워 17일) △자선음악회(11월 14일) △불우이웃돕기(11월 24일) 등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사업추진 결과도 공유됐다. 생명나눔은 2025년 장기기증 희망등록 3208명,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지원 2320명으로 목표치 100%이상을 달성했다. 현재 누적 인원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8만6300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은 5만 9423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환자 32명에게 치료비 5888만 9770원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환자 치료비는 1212명에게 43억 5151만 905원이 지원됐다.

일면 스님은 “지혜와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힘찬 정진력과 지혜로 진일보를 이루는 한 해가 되겠다”면서 “늘 최선을 다해 불교계에서 부처님 자비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구촌 생명살림 공동 캠페인 共生

세계는 한 꽃송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어른들의 분쟁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 마음 놓고 뛰어놀 운동장, 그리고 내일의 꿈을 적어 내려갈 공책 한 권이 이 아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총성 대신 노래가 퍼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자비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피난민과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이렇게 사용됩니다.

긴급 구호
피난민 생필품, 영양식, 의료품 지원

교육 지원
파손된 학교 보수 및 교복, 가방, 학용품

후원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현지방문 2026년 3월

아이들이 다시
연필을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더해주세요!

후원 동참 문의
02)2004-8214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나누며 하나되기 로터스월드 가비를 나르는 수레꾼

생태 보전·환경 실천으로 새해 '출발'

부산불교환경연대, 1월 31일 '큰고니 먹이 주기'

어린이 · 학부모 등 70여 명 동참
고구마 · 볍씨 뿌리며 생명 존중
인도 소녀 위한 면생리대 제작도
자연 순환 업사이클링 활동 지속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환경연대가 생태 보전과 국제 연대,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아우르는 활동으로 새해 행보를 시작했다. 사진은 1월 31일 맥도생태공원에서 열린 '큰고니 먹이 주기 행사' 후 기념촬영 사진.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생태 보전과 국제 연대,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아우르는 활동으로 새해 행보를 시작했다. 겨울 철새 보호 현장부터 해외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자원 순환과 일회용 줄이기 실천까지 신년 초부터 다양한 현장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1월 31일 맥도생태공원에서 겨울 철새 큰고니의 생존을 돕고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큰고니 먹이 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환경연대 회원을 비롯해 대원각사와 도림사, 반야선원 신도, 해운대 지역 6개 초등학교 어린이와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큰고니의 먹이가 될 고구마 150kg과 볍씨 80kg을 직접 뿌리며 생명 돌봄의 시간을 가졌다.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며 "이 새들과 자연은 인간과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조건으로 존재하는 생명공동체"라며 "어린이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자연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느끼고, 동식물을 아끼는 마음을 삶 속에서 키워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정찬 스님은 "해마다 이 자리를 지켜보면서 작년보다 고니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며 "먹이 부족과 서식 환경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아울러 "그럼에도 이 행사를 계속 이어 가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직접 자연과 마주하고 생명을 돌보는 경험이 환경을 지켜 갈 미래의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성화 '습지와 새들의 친구' 사무국장은 "큰고니의 주요 먹이터였던 명지갯벌과 낙동강 하구 일대가 개발과 수위 변화로 먹이 자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인위적인 환경 변화로 월동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큰고니의 현실은 습지 보전과 체계적인 생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생태 현장 활동과 함께 국제 연대 활동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1월 14일과 21일에는 부산 반야원에서 '작은 선물 만들기' 활동을 열고, 인도 불가촉천민 마을에 거주하는 소녀들을 위한 다회용 면생리대 200개를 제작했다. 이번 활동은 위생용품 부족으로 생리 기간마다 건강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녀들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여래사불교대학 '무진등'에서 후원한 100만원이 제작비로 사용됐다.

이날 부산불교환경연대 회원을 비롯해 신대승네트워크, 대불련 총동문회 회원들이 동참했으며,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과 대원각사 및 미소원 신도와 회원들도 함께해 손바느질과 재봉바느질로 정성을 보탰다. 제작된 면생리대는 2월 초 인도 현지에서 불가촉천민 마을과 연계해 활동하는 단체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색사찰 부산 1호 도림사가 추진해 온 '현수막 가방 만들기' 활동은 시니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2월 3일에는 동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수막 가방 만들기 전수 시간이 열려,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과정이 공유됐다. 환경 실천이 시니어 일자리로 연결된 사례다.

생활 속 일회용 줄이기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도림사는 신문지로 참기름병 봉투와 과일 봉투를 접어 사찰과 참기름집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참기름 사용이 많은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는 신도와 봉사자들이 신문지 봉투 5000여 개를 제작해 참기름집에 전달해 왔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올해도 생태 보전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 연대와 생활 속 환경 실천을 꾸준히 이어 갈 계획"이라며 "철새 보호와 습지 보전 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자원 순환을 통한 업사이클링 활동 등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파라미타, 청소년 전인 성장 사업 확대

2월 4일, 2026년 정기 총회
사업계획 및 운영 방안 확정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2026년 한 해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2월 4일 부산 더파티 시청점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사진〉

협회는 올해 분회 및 회원 모집을 시작으로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소년의 달을 맞아 나눔 봉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어 문화 예술 프로그램과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 전국 단위 연합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소통 역량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나선다. 아울러 분회별 체육 수련 프로그램과 명상 및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통해 자기 탐색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총재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은 사무총장 해공 스님(범어사 포교국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알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내실을 다지고, 더욱 도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도량 수호 발원 사천왕재 봉행

1월 31일, 경내 사천왕문서
"성찰과 다짐 세우는 계기"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1월 31일 경내 사천왕문에서 도량과 사부대중의 평안을 기원하는 사천왕재를 봉행했다.〈사진〉

범어사 천왕문은 2010년 12월 15일 방화로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1년 3개월 만인 2012년 3월 26일 기존 모습대로 복원되면서 범어사는 도량 수호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맞았다. 이를 바탕으로 범어사는 매년 음력 12월 15일에 사천왕재를 봉행하며 사찰의 안녕은 물론 화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사천왕재를 통해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고 새로운 다짐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차고 비는 달처럼' 한·중 불교예술전 '무상의 달'

왕암사 · 대전민화작가협회 등 주관
한 · 중 불교 예술가 20여 명 참여


개막식에서 진행된 테이프 커팅 모습.

불교의 무상 사상을 예술로 풀어낸 한·중 현대 불교예술 교류의 장이 경주에서 열렸다.

왕암사(주지 세봉 스님)와 중국 민족박물관, 대전민화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참여 주관한 한·중 현대 불교예술 작품전 '무상의 달'이 2월 3일 동국대 WISE 캠퍼스 갤러리 백상에서 개막했다. 전시는 2월 8일까지 진행됐다.

전시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상(無常)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현대 불교 예술가 20여 명이 참여해 삶의 생성과 소멸, 순환의 이치를 예술로 풀어낸 자리다.

전시에는 관세음보살 등 불교적 상징과 불교문화를 주요 소재로 삼아온 중국 현대 작가들과 한국의 불교민화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불교문화 예술의 현재를 다층적으로 보여 준다. 전시 제목 '무상의 달'은 차고 비고 다시 차오르는 달의 흐름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중국 작가들의 작품 70여 점과 한국 작가들의 작품 30여 점 등 총 1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통도사 총무국장 진응 스님, 양산 신흥사 주지 호법 스님, 김민경 한국부탄우호협회 회장을 비롯해 중국민족박물관 관장과 작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세봉 스님이 20여 년간 중국을 오가며 오대산과 소림사 등 중국 불교계와 교류해 온 인연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세봉 스님은 "요즘 세계를 보면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갈등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비울 줄 알고 고정되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예술을 통해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승려연수교육 '선시' 강좌

3월 10일~4월 7일 화요일
안국선원 시원암서 총 5회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선시(禪詩)의 의미와 불교적 가치를 조명하는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국선원 시원암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사는 현진 스님이 맡았다.

현진 스님은 대구 동화사 율주로, 계율과 선 전통에 대한 연구와 강설을 이어 오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조사와 선사들의 선시에 담긴 선적 사유와 수행의 맥락을 중심으로, 선시가 불교 수행 전통에서 지닌 의미와 역할을 살핀다. 선시는 문학적 표현을 넘어, 깨달음의 언어이자 법문으로 이해되는 수행의 언어라는 점을 짚을 예정이다.

수강료는 15만원이며, 전 과정 이수 시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30점이 부여된다. 정규 수강 외에 청강도 가능하며, 청강비는 10만원이다. 051-501-75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출강 및 통신 2026학년도 제35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5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원서 교부 및 접수
202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문의 02)733-1959, 02)720-1836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과정과 함께하는

붓다자나 명상

붓다자나는 닛다싸왓투 경에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깨닫고 실현하여 선언한 것이다"라고 전하는 것으로 석가모니 붓다를 실현한 성불의 비밀이며 고따마의 수행경험을 순차에 따라서 집대성한 여래의 정법명상입니다.

이곳에는 붓다가 되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일곱 단계 진리의 문에 들어가 법신을 구족하고 서른 두 개의 비밀금고를 열어 영적성장에 도달하며 백 마흔 한 가지 담마토크로 기록된 아가마를 실천하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과정에서는 이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사찰의 청년불자 증가를 돕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수행자 여러분의 수희동참을 바랍니다.

모집대상 스님 또는 교역직 종사자
모집기간 2026년 1월 ~ 2026년 2월
교육내용 붓다자나 전문가 과정
교육기간 1년(2학기, 매주 수요일)
모집인원 선착순 20명
개강일시 2026년 3월 11일(수) 오후 2시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찰경영최고위과정
입학문의 책임교수 010-8775-2340 / 학사운영실 02-2260-8887

동화사, 현부 대선사 영결·다비식 엄수

1월 28일 세납 97세로 원적
1월 30일 경내 설법전 일원서
"스님 수행 정신 기리며 정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는 1월 30일 목은당 현부 대선사의 영결·다비식을 엄수했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는 1월 30일 경내 설법전 일원에서 조계종 초대 종정 석우 스님의 시봉이자 청빈 수행자로 존경을 받았던 목은당 현부 대선사의 영결·다비식을 엄수했다.

1월 28일 세납 97세, 법랍 78세로 원적에 든 현부 스님은 진주 다솔사에서 출가해 자운 율사에게 구족을 받았다. 상원사 청량선원, 월정사, 각화사, 봉암사, 통도사, 동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하며 오직 수행을 근본으로 삼아 평생을 정진해 왔다. 대구 용흥사를 창건해 정진하다가 만년에 조카 상좌인 오정 스님에게 후사를 맡기고 원적에 들었다.

임종 직전 오정 스님이 임종게를 묻자 현부 스님은 "새가 나무에 앉았다 떠나면 그만이지 임종게가 왜 필요하냐"고 했다. 그래도 한 말씀 해 달라고 청하자 "너도 이제 편하게 살아라"며 "다른 주위 분들에게 알려서 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라"하고는 고요히 입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결식에는 현부 스님을 그리는 당대 선지식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영결식을 증명한 전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는 "무유정법이요, 가고 옴이 없는 여여한 법에 다른 말을 붙일 수 없다"며 현부 스님을 기렸고, 금당선원 유나 효광 스님은 "한 생각 홀연히 일어났다 사라지듯 문득 오셨다 문득 가셨으니 한 티끌도 변하거나 달라짐이 없다"고 조사를 전했다.

전 원로의원 지성 스님, 동화사 율원장 현진 스님, 법규위원장 혜경 스님 등 문중의 주요 스님들과 가르침을 따랐던 후학 등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불 들어갑니다"를 외치는 거화 의식으로 다비식이 거행됐다. 다비 의식이 진행되는 중 무지개가 떠오르자 대중들은 환희심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현부 스님의 마지막 여정을 배웅했다.

선광 스님은 "스님께서 남기신 자비의 향기는 팔공산 골골마다 남아 수행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며 "우리 후학들이 더 열심히 수행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현부 스님의 초재는 2월 3일 동화사 봉서루에서 봉행됐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지역 상생 MOU

하나은행 대전세종영업본부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탄대 스님)과 하나은행 대전세종영업본부(대표 오세진)가 불교 전통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1월 30일 세종전통문화체험관 문화체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관장 탄대 스님(광제사 주지)과 선중 스님(사무국장), 오세진 대표를 비롯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전시·홍보 분야의 상호 교류를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지원, 기관 간 정보 및 성과물 공유 등을 추진한다.

탄대 스님은 인사말에서 "하나은행 대전세종영업본부와 세종중앙금융센터 관계자들이 보여 준 신뢰와 성실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금융기관이 동반자로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북불교대학, 불교학과·법사과 졸업식

2월 11일 큰법당서… 66명 졸업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2월 1일 대학 4층 큰법당에서 제38회 불교학과, 제33회 법사과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졸업식에서는 불교학과 권문일 불자를 비롯한 51명과 법사과 김선희 불자를 포함한 15명 등 총 66명의 불자가 졸업장을 받았다. 아울러 1년간 학업과 수행, 포교 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불자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이창구 학장은 졸업식사에서 "졸업은 흔히 학업을 마친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불교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업을 마친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오늘은 공부를 끝낸 날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내려놓는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중생 바라보는 수행자 되길"

비구니 승가대학 · 대학원 졸업식 잇달아



비구니 승가대학·대학원 졸업식이 잇달아 열렸다. 사진 왼쪽은 1월 30일 열린 운문사승가대학 제62회 및 한문불전대학원 제4회 졸업식, 사진 오른쪽은 2월 2일 열린 제63회 동학사승가대학 및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제15회·연구과정 제4회 졸업식.

비구니 승가대학·대학원 졸업식이 잇달아 열렸다.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는 1월 30일 청풍료에서 '운문사승가대학 제62회 및 한문불대학원 제4회 졸업식'을 열고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식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을 비롯해 주지 은광 스님, 학장 영덕 스님, 졸업생과 재학생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학인들의 새로운 앞날을 축하했다.

승가대학장 영덕 스님은 "배움과 깨달음의 성취를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며 승가와 사회, 나아가 전 인류가 지혜와 자비로 가득한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2200여 명 운문사의 한 사람으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초발심자의 마음으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운문사 주지 은광 스님은 "오늘은 운문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졸업생들이 힘차게 나아가는 첫날"이라며 "금강 같은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 혜명을 믿고 큰 은혜에 부합하는 화엄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무영 스님은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운문사의 청정한 가풍과 비구니 수행자로서의 당당한 자부심이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공주 동학사(주지 경원 스님)는 2월 2일 대웅전에서 '제63회 동학사승가대학 및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제15회·연구과정 제4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승가대학 4명,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4명, 연구과정 1명이 졸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승가대학 법우 스님과 대학원 전문과정 동일 스님, 연구과정 선해 스님이 수상했다. 마곡사 주지상은 승가대학 송연 스님과 대학원 전문과정 범경 스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회주상과 주지상, 학장상 시상도 진행됐다.

주지 경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졸업생 수행자 여러분께서는 부디 진리를 배워서 아는 것으로 졸업했다 하지 마시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졸업으로 삼길 바란다"며 "언젠가는 기필코 중생의 업을 졸업하고 부처님이 되는 것에 참다운 졸업의 의미가 있다"고 당부했다.

화엄승가대학원장 일초 스님은 "그동안 갈고닦은 바를 중생을 향해 회향하고, 마음을 낮은 곳에 내려놓고 중생을 바라볼 수 있는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승가대학장 명오 스님은 훈화에서 "졸업은 마침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며 "부처님께서 보이신 가르침의 길 안에서 고락을 경험하며 더욱 단단해지고, 자신에게 정직한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 반야사, 설맞이 자비 나눔

회원구청에 쌀 150포대 전달



창원 반야사(주지 혜명 스님)가 설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펼쳤다.

반야사는 2월 3일 대웅전에서 '제31회 설맞이 자비의 백미나눔'을 열고 회원구청에 백미 150포대를 전달했다.〈사진〉 행사에는 주지 혜명 스님을 비롯해 경문 스님, 제종남 회원구청장, 강인숙 내서읍장, 이숙이 사회복지과장 등 기관·단체장과 신도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주지 혜명 스님은 "30년 전, 1년 동안 저금통에 모은 금액을 이웃에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이후 읍사무소, 구청 등과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나눔이 가능해졌다"며 "해마다 설과 추석에 백미 나눔을 이어 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어려울수록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끊이지 않는 실천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종남 회원구청장은 "반야사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쌀을 꾸준히 기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만암 대종사 제69주기 추모다례재

백양사 2월 2일 대웅전 등서
"종단 중흥 이끈 선지식" 추모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만암 종헌 대종사(曼庵 宗憲, 1876~1957)의 원력을 되새기는 추모의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2월 2일 대웅전과 조사전에서 '만암당 종헌 대종사 제6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 수좌 일수 스님,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해 선원과 말사 주지 스님, 학교법인 정광학원 교직원들이 동참해 큰스님의 뜻을 기렸다.

주지 무공 스님은 행장 소개를 겸한 인사말을 통해 만암 스님의 생애를 조명하고 만암 스님이 백양사의 중흥조로서 남긴 족적을 강조했다. 무공 스님은 "1916년 폐허에 가까웠던 백양사의 주지로 재임하며 중창불사를 통해 오늘의 가람을 완성했고,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왜색불교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호 스님, 만해 스님과 함께 임제종 운동을 전개하고, 청류암 광성의숙을 설립해 승려들에게 근대 학문을 가르치며 인재 양성에 헌신했다"고 덧붙였다.

종단 차원의 공헌 또한 크다. 만암 대종사는 1948년 조선불교 교정에 취임하고 호남 고불총림을 결성했으며, 1954년에는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했다. 1957년 1월, 세수 81세 법납 71세로 좌탈입망했다.

원로의원 성오 스님은 추모사에서 "큰스님 기일이면 늘 눈이 많이 와 조사전 앞 눈을 치우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여러 큰스님들이 만암 스님을 이야기할 때 늘 '그 어른'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공덕을 담아 표현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수행과 학덕, 교육사업과 사회적 실천까지 어느 하나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른의 공로를 깊이 찬탄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양사는 교구종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선용 고운사 교구신도회장 취임

1월 30일 이 · 취임식 개최
"지역 포교 제2도약" 다짐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 신임 교구신도회장에 천성용 씨가 취임했다.〈사진〉

고운사는 1월 30일 화엄문화템플관에서 '제83차 교구종회 및 교구신도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주지 등운 스님을 비롯한 교구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신도회 관계자,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포교를 위한 새로운 정진을 다짐했다.

천성용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아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조계종 종지(宗旨)인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고 따르는 신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나로부터 우리로, 우리로부터 모두로'라는 슬로건 아래 본말사 스님과 신도들이 힘을 모은다면 고운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면사 "전국 25개 본사 중에도 모범이 되는 교구와 신도회를 이끄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 우리 교구의 미래와 희망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주지 등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먼저 지난 임기 동안 교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임 회장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등운 스님은 "지난 산불 발생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신도회의 모습은 진정한 불자 수행의 귀감이었다"며 "지난 봄 산불로 많은 것이 타고 사라졌지만 기도할 수 있는 법당과 템플스테이 건물을 남겨 주셔서 우리가 천막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셨고, 대중들을 위한 공양과 화장실을 남겨 주셨다. 꼭 필요한 곳들이 남겨진 것도 부처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16교구가 전국 어느 교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서로 화합해 부처님 가장 큰 가르침인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도심 스님, 생명나눔에 500만원 쾌척

2월 2일 발전기금 전달



안성 연등사 주지 도심 스님(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이사장)이 2월 2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사진〉

서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도심 스님은 "일면 큰스님께서 그동안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해 오셨는데 미처 동참하지 못해 늘 마음이 쓰였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생명나눔의 자비행과 우리 사회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면 스님은 "스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내실을 다지는 소중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승가회, 신년하례 및 모금전달식

1월 27일, 총무원 법당서



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총무원장 성보 스님)는 1월 27일 창원 총무원 법당에서 신년하례식 및 모금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총무원장 성보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종단의 화합과 자비 실천을 다짐했다.

성보 스님은 "병오년 한 해는 종도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산사에서 맞는 새해 어때요

전국 11개 시·도 30여 사찰서
'설날 특별 템플스테이' 운영
차례 · 명상 등 프로그램 다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낙산사에서 진행된 설날 특별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고즈넉한 산사에서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전국 11개 시·도 30여 개 사찰에서 '설날 특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설 연휴인 2월 16~18일 전후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설날 합동차례, 정월 초하루 부처님께 드리는 불교 전통 새해인사(통알 通謁), 떡국 공양, 만두 빚기, 윷놀이·성불도 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 108배·선명상·걷기명상·차담 등 새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전통·수행 체험이 마련된다.

△하동 청계사 △전주 서고사 △하동 쌍계사 △공주 학림사 △화성 용주사 △부산 홍법사 △공주 마곡사 △남양주 봉선사 △예산 수덕사 △양양 낙산사 △강릉 용연사 △해남 대흥사 △완도 신흥사 △서울 국제선센터 등에서는 사찰 설날 차례 문화와 수행 프로그램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가족, 지인과 함께 설날 정서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부안 내소사 등을 추천한다. 부안 내소사에서는 나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 새해의 다짐을 되짚고, 영동 반야사에서는 성불도 놀이와 별을 보며 나를 돌아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보은 법주사는 '은행윷' 만들기 및 설날 사랑방(윷놀이·포춘쿠키 이벤트)이 진행되며, 경주 골굴사에서는 선무도 공연을 관람·수련하고 전통놀이 한마당을 체험할 수 있다. 고창 선운사에서는 천마봉 해맞이와 민속놀이(제기차기·윷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 해를 새로 열고 시작하는 마음을 다지고 싶다면 선명상 등 각종 수행 프로그램을 만나 보자. △강화 연등국제선원의 선명상 집중 수행(4박 5일) △청주 용화사의 선명상·필사명상(새해, 고요를 켜다) △충주 석종사의 사경(寫經)·108참회·떡국 공양 △영천 은해사의 싱잉볼 소리명상 및 별빛산책(2/17~18, 2/18~19 각 1박 2일) △성주 심원사의 해맞이 숲길 명상 △용인 법륜사의 해맞이 명상·통알(새해인사) △남양주 봉선사의 '비밀의 숲' 해맞이 등에서 새해의 원력을 세우는 수행형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설날 특별 템플스테이를 통해 가족애를 다지고, 새로운 한 해의 원력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며 설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각 사찰별 템플스테이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설날 특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광역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간략 소개
서울	양천구	국제선센터	2026 설날맞이: 내 마음에 선함	선명상, 108배(염주 꿰기), 스님과의 차담, 촛불 밝히기, 성불도 놀이(사찰 보드게임), 통알(새해인사) 등 (합동차례: 자율신청)
부산	금정구	홍법사	설날 합동차례 자원봉사 무료템플스테이	새벽예불, 저녁예불, 공양, 합동차례 자원봉사 등
인천	강화군	연등 국제선원	설 연휴 연등국제선원 선명상 집중 수행	명상, 마음 나누기, 걷기명상, 스님과의 차담 등
경기	용인시	법륜사	2026년 병오년(붉은 말의 해) 설날 2박3일 템플스테이	타종체험, 좌선명상, 통알(새해인사), 행복주머니 나눔, 해맞이 명상, 합동차례, 스님과의 차담 등
	화성시	용주사	2026년 설날 특별 템플스테이	스님과의 차담, 요가, 명상, 탑돌이, 걷기 명상, 윷놀이, 합동차례, 성불도 놀이 등
	남양주시	봉선사	2026년 행복한 우리우리 설날 템플스테이	합동차례, 비밀의 숲 해맞이, 새해 소원지 쓰기
		묘적사	2026년 냥이와 윷판 사이, 설날의 쉼 – 설맞이 묘적사 템플스테이	스님과의 차담, 108배, 윷놀이, 별 보기, 보리수나무 소원지 쓰기,
	양주	육지장사	나답게 사는 2026년을 위한 집착OFF발원ON	묵은 해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온구체험, 집착타파 발원 선포식 , 호흡명상과 보행명상
	가평군	대원사	2026년 마음에 빛을 켜는 설날 템플스테이	촛불 밝히기, 108배(소원주 꿰기), 윷놀이&딱지치기&제기차기, 새해인사
강원	강릉시	용연사	병오년 설날맞이 템플스테이	스님과의 차담, 탑돌이, 만두 빚기 체험, 가래떡 굽기, 108배 체험, 합동차례, 단청 키링 만들기, 별별 산책, 포행 등
	양양군	낙산사	[선명상] 제49차 설날특집 '아득한 성자'	성자들의 만남, 음식명상, 요가형 108배, 호흡명상, 합동차례, 윷놀이, 새해통알, 연꽃등 만들기, 파도명상, 차명상 등
	인제군	백담사	2026년 제18회 우리 설 희망 템플스테이	스님과의 차담, 성불도게임 및 참선배우기, 통알 및 큰스님 법문 듣기
충북	충주시	석종사	2026년 설날엔 '부처님 종갓집'에서 (1박2일/2박3일)	용서자비 사경, 타종체험, 2025년 나에게 참회 편지 쓰기, 108참회, 희망단주 만들기, 떡국 공양, 명상, 합동 차례, 스님과의 차담 등
	영동군	반야사	설날에 나는 절로!	편백숲 걷기, 별 보며 나를 돌아보며 하루 마무리, 연꽃 만들기 체험, 성불도 놀이, 통알(새해인사), 스님과의 차담 등
	청주시	용화사	〈2026년 설날 특별템플스테이〉 새해, 고요를 켜다	스님과의 차담, 선명상/필사명상, 108배 새해 첫 염주 만들기, 만다라 전통매듭 가방장식 만들기
	보은군	법주사	2026 [설맞이] 템플스테이	나만의 '은행윷' 만들기, 설날 사랑방('은행 윷놀이'와 '포춘쿠키':상품증정), 전통 새해인사 '통알', 세조길 걷기, 수정봉 등반
충남	공주시	학림사	2026년 설날 특별 템플스테이(1박2일/2박3일)	참선(좌선), 포행, 108배, 성불도 놀이, 설합동차례, 108배, 단주 만들기 등
		마곡사	2026 설날 맞이 2박3일 스테이	타종체험, 별빛명상, 108배 체험, 선명상, 군왕대 산행, 합동 차례, 나만의 만다라 색칠하기, 백범 김구 명상길 걷기 등
		한국문화연수원	2026년 설날 특별템플스테이 말처럼 힘찬 기운을~	새해 복떡복떡 만들기, 연꽃 소원등 만들기, 달밤 소원 빌기, 108배 명상, 마곡사 탐방, 새해 꽃신 만들기 등
	세종시	영평사	2026년 설날 템플스테이 2박 3일	한 해를 내려놓다(호흡명상), 연꽃차담, 새배(통알), 떡국공양, 성불도 놀이, 싱잉볼 마음챙김 명상, 촛불명상 등
	예산군	수덕사	2026 설날 템플스테이	스님과의 차담, 불전사물관람, 합동차례, 해맞이 숲길명상, 새해통알(새해인사) 등
전북	전주시	서고사	2026년 병오년, 말달리자!(설날 특별프로그램)	사찰투어, 108배 체험, 스님과의 차담, 황방산 산행, 염주 만들기 체험 등
	고창군	선운사	〈말의 해 특별기획〉 설날 풍성하게 차렸어요	소원등 만들기, 천마봉 해맞이, 제기차기, 윷놀이, 스님과의 차담 등
	부안군	내소사	2026 설날 윷놀이&108배 염주만들기&새해다짐(나에게 쓰는 편지)	윷놀이, 108배 염주 만들기, 새해다짐(나에게 쓰는 편지), 스님과의 차담 등
전남	해남군	대흥사	2026년 대흥사 설날 특별 템플스테이 2박3일	만두 만들기, 합동차례, 스님과의 차담, 요가명상, 숲길 걷기, 연꽃등 만들기 등
	완도군	신흥사	2026년 설날 떡국 맛집 신흥사 템플스테이	남파랑길 걷기 명상, 해맞이, 참선, 108배, 불멍(고구마 구워 먹기), 스님과의 차담, 떡국 공양, 청해진 걷기 등
	담양군	용흥사	2026 병오년 한해 맞이 템플스테이	새해 소원지 작성과 108배, 합장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경북	경주시	골굴사	설날 템플스테이	선무도 공연 관람, 선무도 수련, 행선(걷기 명상), 좌선, 108배, 차담, 떡만둣국의 만두 빚기, 전통민속놀이한마당 등
	영천시	은해사	[2026 설연휴 템플스테이]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스님과 차담, 합장주 만들기, 별빛산책, 걷기명상, 싱잉볼소리명상
	성주군	심원사	설맞이 템플스테이 〈'해의 문'을 여는 마음 인사〉	차 한잔 명상, 서원탑돌이, 해맞이 숲길 명상
경남	하동군	청계사	2026년 병오년 행복한 설날 템플스테이	선명상, 윷놀이, 행복팔찌만들기, 차 명상, 성불도 놀이 등
		쌍계사	2026년 구정 특별 템플스테이 [쌍계사로 떠나는 '우리소리 여행']	[국가무형유산 특별공연] 거문고 산조 이수자, 경기민요 이수자 – 거문고명상공연, 나도명창(민요배움시간) 쌍계사 스님들과 함께하는 윷놀이, 통알법회, 설날합동차례, 스님과의 차담

한국·중국 불교학자들 韓中불교 교류 조명하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 법문사 불학원 학술대회

1월 17일 중국 서안서 개최
'장안불교와 해동교류' 주제

중국 장안 불교와 한반도 불교의 교류 양상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중국 서안에서 열렸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은 "1월 17일 중국 서안 법문사(방장 관엄 스님)를 방문해 '장안 불교와 해동의 교류'를 주제로 법문사 불학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이번 법문사 방문은 지난해 4월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중국 법문사 불학원이 체결한 '장안불교와 해동의 교류 연구 문화교류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불교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의 불교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단장 박인석 교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불교문화의 다양한 소재들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법문사 방문 역시 불교 의례 가운데 복장(腹藏) 의식, 사리 신앙 등에 대한 한국과 중국 불교문화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직접 확인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다.

학술대회 환영사에서 법문사 불학원장 관엄 스님은 "이번 만남은 국경을 초월한 법연의 결합이자, 학문과 신앙을 관통하는 깊이 있는 대화의 장"이라며 "중·한 불교 교류사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법문사는 부처님의 지골 사리를 모신 곳으로 부처님의 진신과 불법이 세상에 머무는 엄숙한 사찰"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중 양국의 불교도와 불교학자들 간의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소속 학자 4인과 법문사 불학원 스님 6인의 발표가 진행됐다. 장안 불교와 해동 간의 사상적 교류 분야에 대해서 박인석 교수가 '7세기 유가사지론의 신라 전래와 주석서의 편찬 : 도륜의 유가론기를 중심으로'를 발표했고, 이기운 교수가 '한국 불복장 의례의 전승과 특징'을 살펴 의례 문화의 기원과 전개를 통해 한국적 특징을 조명했다.

'깨달음을 염원하는 타임캡슐, 불복장에 나타난 경전의 근원을 찾아서: 조상경과 금강정경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이재수 교수는 의례 문화의 사상적 기원과 특징을 살폈으며, 이경희 연구원은 '당대 사리 신앙과 사리장엄의 신라 수용 양상'을 통해 사리 신앙의 전래와 한국적 특징을 논의했다.

중국 법문사에서는 석심겸 스님의 '다라니 경전의 장안에서의 전역(傳譯)'을 비롯한 불교 사상적 기초와 경전의 번역과 밀교 의례의 문화적 영향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학술대회가 종료된 이후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이번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법문사 간에 이뤄진 학술 및 문화 교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기관 모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중국 법문사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3월21일 출발~3월26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3월25일 출발~3월29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5월 27일 출발~6월 2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간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4월01일 출발~4월10일 도착
6월04일 출발~6월1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이탈리아 돌로미테 여행 9일
26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돌로미테 코르티나담페초와
오르티세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7월 초는 야생화가 만발한 최고의 힐링코스입니다.
출발일 : 7월02일~7월10일 출발확정
▶ 동참금 : 800만원

우즈베키스탄 불교성지 순례 7일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와
테르미즈의 불교사원 등 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6월12일(5박7일)
▶ 동참금 : 30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국립중앙博, 국내 최초 '태국미술' 전시 연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이 오는 6월 '태국미술' 특별전을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 또 중국 돈황 장경동에서 발견된 귀중본 사경을 최초 공개하고, 연말에는 불교미술실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월 3일 교육관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전시 및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대형 불교 전시들을 만날 수 있다. 오는 6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태국의 왕실·불교 미술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태국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에는 방콕국립박물관 등 태국 내 21개 국립박물관 소장품 203건 227점이 소개된다. 전시를 마친 후에는 10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순회 전시가 이뤄진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박물관 3층에서 세계 미술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정상 세계 미술을 컬렉션해 수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세계 미술을 박물관으로 가져와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올해에는 태국 문화부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어 국내에서는 최초로 '태국미술'을 전시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알고 싶지만 접근하기 어렵던 세계 미술들의 면면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서는 보물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을 만날 수 있는 괘불전을 4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연다.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은 1710년에 제작된 높이 7m 42cm, 너비 5m 85cm 크기의 대형 불화로 중앙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여덟 보살과 십대제자를 함께 그렸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돼 있던 중국 돈황 석굴 장경동에서 발견된 귀중본 불교 사경을 10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특별 공개한다. 공개되는 사경은 〈대지도론〉으로 중국 수나라 시기인 593년에 조성된 것이다.

유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수장고 유물이 40여만 점이 있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돈황 장경동 문서 뭉치가 발견됐고 확인해 보니 수나라 시기에 제작된 귀중한 사경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경은 영국 대영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시기가 앞선 것으로

2월 3일 신년기자회견서 밝혀
6월 16일~9월 6일 전시 개최
통도사 성보박물관서 순회전도
12월 중 불교회화 · 조각실 개편
부처님오신날 맞아 괘불展 진행
中돈황 장경동 사경 최초 공개
국립박물관들 불교 전시 '봇물'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불교문화유산들을 만날 수 있는 상설전시관인 불교조각실과 불교회화실은 올해 12월 중 전면 개편 및 재개관을 단행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명품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잘 조명할 수 있도록 전시 구성을 변경하고 기존 유산 설명도 봉안처, 의례, 승려 장인 등을 추가해 입체적으로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태국불교문화유산 '걷는 붓다'. 오는 6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태국미술'에 전시된다.

"불교조각실과 불교회화실의 전면 개편은 10여 년만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밝힌 이애령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이 20년이 지났고, 그간 전시 노하우와 연구 자료들의 축적들이 이뤄졌다"면서 "승려 장인, 발원문 전시 등을 통해 확인됐던 내용들이 전시 설명 등에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국립박물관들의 주요 불교 관련 전시 일정도 공개됐다. 국립경주박물관은 6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황룡사 목탑 사리장엄구' 특별전을 개최하며 신라 고분 출토품과 불교미술유산을 소개하는 국외 전시도 진행한다.

국립전주박물관은 9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주 서고사 나한상' 특별전을, 국립익산박물관은 오는 11월 9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백제 원찰, 제석사'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춘천박물관은 11월 중 상설전 '강원의 통일신라' 열고 염거화상탑지 등 강원 지역의 통일신라 불교문화유산들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2026년을 맞아 '모두가 함께하는 박물관'이라는 비전 아래, 관람 방식과 운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에 착수한다.

유 관장은 "3월 16일부터 개관시간을 9시 30분으로 앞당겨 관람객 밀집도를 분산시키고, 8월에는 옥외 편의시설을 확충해 박물관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재정립할 것"이라며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체계를 구축해 관람 환경과 운영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성과 학술성을 아우르는 특별전, 상설전시의 전략적 재구성, 참여형 문화행사를 통해 관람객이 전시의 주체가 되는 박물관을 구현하겠다"며 "2026년은 박물관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그 경험을 세계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절제·성숙·자애의 동시적 실천

㉙ 삼취정계(三聚淨戒)

三聚淨戒

'소승불교'라 불려 온 초기 남방 상좌부 불교에 대비되는 대승불교는, '대승(大乘)'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출가 수행자를 넘어 세상의 모든 중생을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범주와 의미 면에서 확장하여 이해하고, 이를 삶의 다양한 국면에 두루 적용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계율 이해의 확장이다. 계율은 더 이상 개인의 자기 단속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실천으로 전환된다.

하나의 계행에 세 가지 목적이 동시에 구현되는 대승불교의 지계(持戒) 수행을 삼취정계(三聚淨戒)라 한다. 이는 악습을 끊는 지악(止惡), 선을 닦아 청정을 이루는 수선(修善), 그리고 이웃의 불안과 고통을 평온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생(度生)으로 구성된다. 이를 일상적인 언어로 풀면 절제, 성숙, 그리고 자애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범망경〉은 삼취정계의 실천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설하고 있다. 열 가지 중대한 계목과 마흔여덟 가지 세부 계목은 악을 멀리하는 섭율의계(攝律儀戒), 선을 닦는 섭선법계(攝善法戒), 중생을 이롭게 하는 섭중생계(攝衆生戒)로 체계화된다. 이러한 사상은 〈유가사지론〉, 〈보살영락본업경〉, 〈대지도론〉 등 여러 대승 논서에서도 반복해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삼취정계의 정신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경전은 〈화엄경〉 '십지품'의 이구지(離垢地)이다.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는 이 수행 단계에서 불살생은 단순한 금지 규범을 넘어 적극적인 자비의 실천으로 확장된다. 경전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

"불자여, 보살이 이구지에 머무르면 성품이 저절로 일체의 살생을 멀리 여읜다. 칼과 몽둥이를 들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알고 인자함과 용서함을 갖춘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에게 항상 이익이 되고 자애로운 마음을 낸다. 이 보살은 나쁜 마음으로 중생을 괴롭히는 일조차 하지 않는데, 하물며 살해할 리가 있겠는가?"

이러한 이구지의 수행은 살생, 도둑질, 거짓말, 분노와 증오 등 열 가지 악습을 선행으로 전환할 것을 권하며 다음과 같이 발원한다. "불자여, 이 보살이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 안락하게 하는 마음, 자애로운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거두어 주는 마음, 보호하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삼취정계의 취지를 되새겨 보면, 지계 수행은 자기 자신과 이웃을 동시에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실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지구별에서 전쟁과 수탈이 사라지고, 성폭력과 차별이 없는 연민과 자애의 공동체를 염원한다면, 삼취정계의 정신과 실천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른다.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평화가 되어라." 〈화순 불암사 주지〉

33관음성지 순례, 2026년 1차 회향

1월 28일 회향식, 110명 동참
3세 어린이 최연소 회향 눈길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1월 28일 '2026년 제1차 33관음성지 순례 회향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제1차에서는 총 110명이 회향을 마쳤으며, 회향식에는 67명이 참석했다.

'33관음성지 순례'는 문화사업단이 발간하는 전통사찰 순례 책자 〈한국 33관음성지〉에 수록된 사찰 33곳을 방문해, 각 사찰의 인장을 모두 모으면 회향증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회향식에서는 첫돌부터 순례를 시작해 3세에 회향을 완료한 '권단아' 최연소 회향자가 참석해 큰 주목을 받았다. 순례기간은 22개월이다. 권단아 회향자의 아버지 권용대 회향자는 소감문을 통해 순례 과정의 어려움을 전하며 "순례를 하면서 가족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해졌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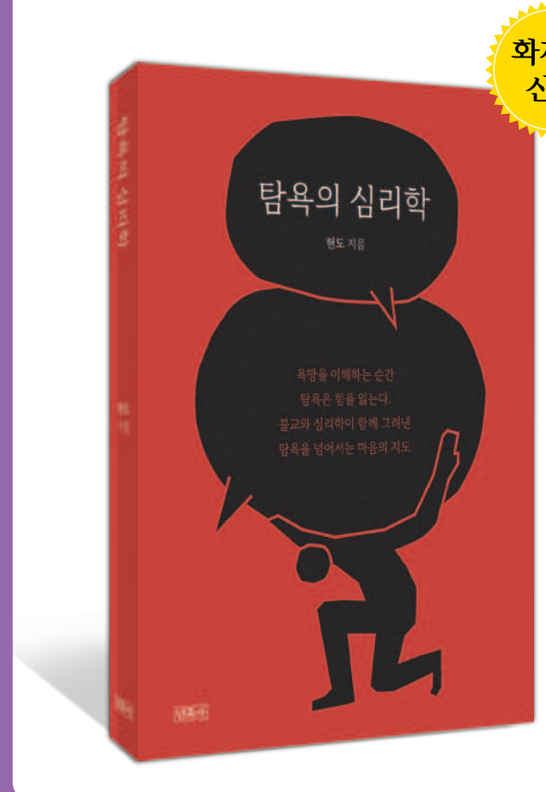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문화사업국장 일학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사찰순례는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가치 중심의 관광이자 지역과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향은 단순히 도장을 모으는 순례가 아닌 사회적 의미와 개인의 원력을 함께하는 소중한 여정"이라고 축하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33관음성지 순례는 2025년 완주 회향자 296명, 이번 1차 회향식까지 누적 회향자 820명을 기록했다. 문화사업단은 향후에도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순례문화 확산을 이어 갈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탐욕은 왜 멈추지 않는가

화제의 신간



돈·욕망·불안이 멈추지 않는 마음의 구조
불교와 심리학으로 읽는 탐욕의 메커니즘

더 가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불안은 멈추지 않았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탐욕의 작동 방식이다

덜 가지는 법이 아니라,
덜 휘둘리는 법을 알려주는 책



탐욕의 심리학
현도 스님 | 392쪽 | 28,500원

직지사 녹원 큰스님을 계사로 출가하여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에서 응용불교학을 전공하여 석사과정을, 동대학원에서 응용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불교상담학회에서 개발한 Mind Detox Program(MDP: 탐진치 해독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 교육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상담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동대학교 불교학과 및 명상심리학과에서 강사로 후학을 기르고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4~2/10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개설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백팔참회문	편집부	토방
3	지장경	광덕 역	불광출판사
4	금강경선물(컬러링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5	기도	일타큰스님	효림
6	마하시 사야도의 뿌라베다숫따 법문(죽기전에경 해설)	비구 일창담마간다	불방일
7	법화경(경전조사어록5)	우학	좋은인연
8	부처의 인생 조언	정운	유노북스
9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	마가	불광출판사
10	윤회와 해탈	이중표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통찰의 체험	운주사	조셉 골드스타인
2	법구경	민족사	석지현 옮김
3	번뇌와 함께 춤춰라	운주사	함현준
4	요가디피카	선요가	아헹가/현천 역
5	선심초심	김영사	스즈키 순류/정창영
6	틱낫한 기도의 힘	불광출판사	틱낫한/이현주
7	금강경 핵심 강의	좋은인연	우학스님
8	무비 스님의 신심명 강의	조계종출판사	무비 스님 지음
9	왜 나무아미타불 인가	불광출판사	J.C.CLEARY/우익지욱
10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오타쿠	김성철

제주4·3 속 불교의 상처를 기록하다



4·3과 제주불교
제주불교4·3희생자 추모사업회 비매품

국가폭력 희생 제주불교 실태 망라
56개 사찰 피해·17명 스님 희생
불교 사회참여 정신 '좌익' 낙인
"역사 증거·희생 영령 법등 되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제주4·3 당시 제주 불교계가 겪은 참혹한 피해 실태를 집대성한 자료집이 출간됐다.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회장 김용범)는 최근 〈4·3과 제주불교〉를 출간하고 1월 25일 제주 관음사 대웅전에서 봉정식을 개최했다.

자료집은 지난 2004년 조계종 총무원이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 재Ⅱ-제주도편〉(2004)을 바탕으로, 4·3피해사찰 재조사 프로젝트 원고(2017), '제주불교신문' 연재 자료 등을 망라했다. 이를 통해 제주4·3 당시 불교계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이에 따른 탄압의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상세히 전한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스님들의 희생과 사찰 훼손의 실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증언한다.

책에 따르면 당시 관음사 주지를 지낸 오이화 스님은 무장대 내통 혐의로 마차 위에 묶인 채 물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입적했다. 또 불교혁신운동을 주도하다 입산한 이세진 스님은 산지포구에서 수장당하는 등 총 17명의 스님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물적 피해 또한 막대했다. 봉려관 스님이 창건한 관음사가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격전으로 전소되는 등 당시 제주의 80여 개 사찰 중 56개소가 전소되거나 파옥, 강제 매각됐다. 이는 제주불교의 신행기반을 크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민중과 함께 정토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던 불교계의 원력이 오랫동안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추모사업회는 "유달리 불교계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은 사찰이 중산간에 위치한 이유도 있지만 '사회참여에 대한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제주 불교계가 해방 후 친일 잔재 청산과 민족 불교 재건이라는 혁신적 움직임을 보였고,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이승만 정권에 '좌익'으로 낙인찍힘으로써 4·3 사건의 큰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다.

김용범 회장은 발간사에서 "제주4·3 당시 불교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보고와 정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료집이 제주불교계의 사회참여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넓히고, 당시 사찰들이 겪은 피해의 실상을 보다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봉행해 온 제주불교연합회장 허운 스님(관음사 주지)은 "이번 자료집 발간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4·3 정신을 불교의 자비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작업"이라며 "이 책이 제주불교의 강인한 역사적 증거가 되고, 나아가 제주 4·3 희생 영령들을 위한 영원한 법등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는 1월 25일 제주 관음사 대웅전에서 〈4·3과 제주불교〉 발간 봉정식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불교 핵심 '연기' 노래한 게송



쫑카빠의 연기찬 주석
쫑카빠 게송
짱캬 룔뻬돌제 주석
정성준 옮김
운주사 / 2만원

연기법·중관사상 핵심 58 게송
룔뻬돌제 주석서 첫 번역·역주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들. 그 뿌리는 무명이네. 이것을 보고 물리치는 모든 것, 연기라 설하네."

불교는 '연기법(緣起法)으로 시작해 연기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기는 "모든 마음과 사물의 현상은 연(緣)하여 발생한다"는 가르침으로, 현상계를 구성하는 사물의 고유성을 부정하기에 무아(無我), 무자성(無自性) 또는 공(空)의 진리라 말해진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아함경〉에서 "연기를 보면 곧 진리를 본 것이요, 진리를 보면 곧 연기를 본 것이다"라고 설하기도 했다.

14세기 티베트불교의 교학자이자 수행승인 쫑카빠 롭상닥빠(1357~1419)는 중관사상을 깊이 연구하던 무렵 큰 깨달음을 얻고 연기법과 중관사상에 대한 찬탄과 핵심 내용을 58개의 게송으로 노래한 〈연기찬(緣起讚)〉을 지었다. 이후 티베트불교에서는 〈연기찬〉에 대한 주석들이 다수 이뤄졌는데, 그 가운데 짱캬 룔뻬돌제(1717~1786)의 〈연기찬석〉이 널려 읽히고 있다.

〈쫑카빠의 연기찬 주석〉은 짱캬 룔뻬돌제의 〈연기찬석〉을 처음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연기찬〉 원문과 우리말 해석, 주석과 역주를 차례로 실었다. 특히 역주에서 함축적인 게송에 담긴 시대적 배경과 의미, 주석에서 언급된 경전 구절의 원전을 자세히 소개해 이해를 돕는다.

번역을 맡은 정성준 전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은 "이 책이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붓다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쉽게 풀어 쓴 첫 불교 수업



불교, 한 번쯤은 궁금하잖아
중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2000원

'밖'에서 보고 '지금'의 언어로 쓰다
역사·문화·수행 아우른 입문서



중현 스님.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새해에도 '힙(Hip) 불교'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불교에서 위로받고 숨 쉴 틈을 얻고자 하지만, 정작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불교는 여전히 '어렵고 방대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불교, 한 번쯤은 궁금하잖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불교를 잘 모르는 이들, 혹은 불교를 막연히 '힐링의 도구' 정도로만 접해 온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친절히 안내한다.

저자인 중현 스님은 불교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불교 밖에서 불교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능한 이 시대에 통용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불교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예로, 많은 이들이 불교를 '스스로 수행해 깨달음을 얻는 종교'라 인식한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불자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더 많이 접하게 된다.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불교일까? 이 질문에 중현 스님은 "둘 다 우리 불교의 모습"이라며 "불교는 종교의 옷을 입은 수행 시스템"이라고 답한다.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비치는 불교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1부에서 4부까지는 불교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짚으며 전체 지형을 그려 낸다.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물론, 불교가 만들어 낸 문화와 제도,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불교적 사유까지 폭넓게 다룬다.

5부에서는 초심자들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를 소개하고 기도, 예불, 불공 등의 개념을 설명한다. 6부는 불교의 선악관과 계율의 의미를, 7부는 불교의 생사관을 바탕으로 '나'에 대한 통찰을 이끈다. 어려운 불교 용어나 개념 대신 일상에서 마주하는 관계의 갈등, 선택의 부담, 불안과 피로 등을 예로 들며 불교가 '지금 여기'에서 작동하는 삶의 지혜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 불교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중현 스님은 이러한 시대에 불교가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사유의 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의 문제의식은 저자의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현 스님은 20대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몸담았고, 30대에는 프로그래머로 변신해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월간 '송광사' 편집장과 일간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꾸준히 고민해 왔다. 불교 안과 밖을 넘나든 스님의 경험은 이 책의 시선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불교가 궁금했다면, 그리고 그 궁금증을 풀어 보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한 번'일지 모른다.

여수령 기자



불교사상과 최신 생물학의 연관성을 탐구!
다르마와 DNA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DNA라는 구체적 실험 대상을 통해 불교의 명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불교 사상의 원리와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디 덴버 지음, 이동수 옮김/신국판/360쪽/값 24,000원

대승의 기원을 다룬 기념비적인 책!
불교와 에크리튀르
서양 인문학의 첨단 이론을 과감하게 접목하여, 대승불교의 역사를 사상사뿐 아니라 사회사의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신국판/480쪽/값 28,000원

일본 고승들의 벼락같은 가르침!
번뇌와 함께 춤춰라
일본 명승들의 수행과 구도의 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현대인들의 마음에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와 깊은 울림을 준다.
함현준 지음/국판변형/24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해체와 실천으로 읽는 〈반야심경〉



반야심경 새롭게 읽기
카를 브룬휠츨 지음
권선아 옮김 / 운주사
1만8000원



슬기로운 반야심경 생활
이인환 지음
출판이안
1만6800원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반야심경〉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거의 모든 법화와 의례에서 봉독된다. 지난해 9월 열린 동국대 '2025 영캠프: 주인공'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참가자들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260자로 간추린 대승불교 정수
사유의 전복에서 자비의 지혜로
수행 지침서로 읽는 〈반야심경〉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당나라 때인 649년, 현장 법사가 번역한 이 경전은 반야 공(空)사상으로 대표되는 600권 분량의 〈반야경〉 정수를 260자로 간추린 것으로, 오늘날 법회와 의식에서 가장 널리 독송된다. 짧은 분량이지만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 현재 국내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반야심경〉 해설서만도 100여 종에 이른다.

최근 출간된 〈반야심경 새롭게 읽기〉와 〈슬기로운 반야심경 생활〉 역시 이 경전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지만, 그 해법은 자못 다르다. 한 권은 〈반야심경〉이 지닌 사유의 급진성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다른 한 권은 그 가르침을 일상으로 가져온다.

사유의 기반 무너뜨리는 경전

〈반야심경 새롭게 읽기〉는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원제는 'Heart Attack Sutra', 직역하면 '심장마비경'이다. 경전이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는 이 역설적 제목은 〈반야심경〉이 등장 당시 얼마나 급진적인 가르침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무아(無我)이고 무자성(無自性)이고 무근거(無根據)인 존재임을 선언한 가르침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독일 불교학자인 카를 브룬휠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반야심경〉을 해부한다. 〈반야심경〉은 위로의 경전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 온 모든 사유의 발판을 해체하는 경전이기 때문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상징되는 이 경전의 언어는 상식을 거부하고, 개념을 부정하며, '없다'라는 선언을 반복한다. 그 결과 독자는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바로 그 혼란이 〈반야심경〉이 의도한 바다.

저자는 〈반야심경〉이 개념적 사유를 해체하는 것을 넘어 감각과 정서, 자아 인식의 차원까지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며 '나'라고 믿어 온 모든 기반이 무너질 때, 비로소 반야의 지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지혜는 자비를 통해 드러난다

이 책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반야심경〉이 지혜의 경전이면서 동시에 자비의 경전이라는 점이다.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이 등장하는 유일한 반야부 경전이며, 관자재보살이 직접 공성(空性)을 설한다. 저자는 이 점을 대승불교 이해의 열쇠로 삼는다. 공성은 차가운 허무가 아니라, 자비심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인도와 티베트의 주요 주석서, 중국과 현대 서구의 연구 성과를 폭넓게 참조해 〈반야심경〉을 입체적으로 읽어 낸다. 경전에 등장하는 용어의 정의와 분류, 어원과 의미를 풀어낸 후 구체적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를 통해 공성과 반야바라밀다의 교설이 불교 수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를 정밀하게 짚어 내는 점이 이 책의 강점이다.

일상에서 살아나는 반야의 가르침

이에 비해 〈슬기로운 반야심경 생활〉은 〈반야심경〉을 '실생활의 지침서'로 바라본다.

시인이자 군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인화 포교사는 초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야심경〉 해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공과 무, 인연법 등 불교 핵심 사상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반야심경〉을 수행법으로 읽어 낸 저자는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라는 육바라밀을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쌓는 실질적 방법'으로 설명한다.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기, 내 감정을 성내지 않고 잘 정리하기, 꾸준히 좋은 습관을 쌓기 등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부처님께 막연히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기보다, 베풀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원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경전에서 삶으로, 해석에서 실천으로

책의 후반부에서는 사성제, 팔정도, 전도몽상 등 불교 핵심 교리를 재가자의 관점에서 풀어낸다. 또 각 장의 끝에 핵심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요약해 담고, 부록으로는 '달라이라마 반야심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실었다.

저자는 "반야바라밀행은 출가 수행자도 이르기 힘든 경지다. 그러니 재가 수행자로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며 "이 책이 '바로 지금 웃을 뿐!'을 실천하며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반야심경 새롭게 읽기〉가 개념과 사유의 기반을 철저히 해체함으로써 반야의 급진성을 드러낸다면, 〈슬기로운 반야심경 생활〉은 그 가르침을 다시 삶의 언어로 전달한다. 수행법으로서의 〈반야심경〉을 읽고 싶은 독자라면 〈슬기로운 반야심경 생활〉이, 경전의 사유적 깊이를 끝까지 탐구하고 싶은 독자라면 〈반야심경 새롭게 읽기〉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명상으로 바뀌는 삶의 풍경



아무튼, 명상
이은경 지음
위고
1만2000원

명상으로 세상을 깊이 이해하다
"선택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뿐"

저자가 명상을 만난 건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왔을 때다. 상사가 챙겨 준 열흘짜리 요가 체험권이 그를 명상으로 이끌었다. 명상으로 '마음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저자는 바디스캔 명상을 통해 나를 다정하게 대하는 법을 익혔다. 삶의 풍경이 조금씩 바뀌는 순간이었다.

〈아무튼, 명상〉은 15년차 홍보 전문가이자 아내, 엄마, 대학원생인 저자가 쓴 명상 에세이다. 명상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매일 명상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편안하게 들려준다.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를 위해 시작한 마음챙김 명상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마음공부로 이어지는 과정이 흥미롭다.

"진정한 변화는 명상 방석 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했다. 명상은 핵심적인 도구였지만, 결코 전부는 아니었다."

마음, 고통, 괴로움, 회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열망으로 저자는 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에 진학한다. 이후 대학원과 여러 수행처에서 명상을 익혔고, 출산과 육아를 거치며 자신을 더 정직하게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때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고, 그런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 하나 뿐'임을 떠올리며 다시 좌복에 앉는다.

저자는 명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말한다. 과학이나 종교라는 단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배움을 이어 가라고. 지혜와 자유는 수행을 통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정수이며,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사랑이라고.

여수령 기자

나를 마주하는 '깊은 고요'



붓다와의 마음수업
정준영 지음
웨일북
1만8000원

30년 수행에서 발견한 '행복 지도'
"마음 깊어질 때 평온 절로 찾아와"

속도와 효율이 지배하는 시대. 우리 내면은 불안과 성냄의 파도가 그칠 줄 모르고, 그럴수록 시선은 밖을 향한다. 하지만 2500년 전 붓다는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설했다.

초기불교학자이자 명상 지도자인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펴낸 〈붓다와의 마음수업〉은 저자가 30년간 수행의 길에서 발견한 행복의 지도를 담고 있다. 미얀마와 스리랑카 등 전 세계 30여 곳의 수행처에서 정진한 저자는 이 책에서 수행이 특별한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누구나 실천해야 할 마음의 행위임을 강조한다.

1부에는 저자가 미얀마 수행처에서 '아라한'을 찾아 떠났던 여정과 그 끝에서 결국 자신과 마주하게 된 진솔한 수행담이 담겨 있다. 스승이 던진 "산을 오르면 다시 내려와야 한다"는 가르침이 삶을 관통하는 화두가 돼, 수행과 삶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여정을 볼 수 있다.

2부에서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언행의 다스림을 뿌리, 마음의 집중을 줄기, 인과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를 열매에 비유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명상법을 알려 준다.

저자는 책에서 진정한 평온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고, 내면의 탐진치(貪瞋痴)를 알아차릴 때 찾아온다고 말한다. "고통이 사라져야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질 때 평온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깊은 독을 '불안'으로 진단하고,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관찰하는 '사띠(Sati, 알아차림)'야말로 소용돌이치는 감정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림이 있나요?"
서울대 철학박사 보일 스님의 내 삶을 위로하는 명작(名作) 읽기!

"예술은 고통을 다루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다"

34명 예술가의 삶과 작품으로 배우는
인생의 지혜 고통 속에서
해방의 길을 찾아낸 대가들의 기록,
불후의 명작을 불교적 사유와
통찰로 재해석하다

보일 지음
360쪽 | 20,000원



미술관에 간 스님
알고 보면 더 힘이 되는 미술 명작 수업

모든 것은 흐른다,
물처럼 바람처럼
묶인 감정, 꼬인 인연, 멈춘 마음을 푸는 '흐름의 지혜'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대강백'
여천무비 스님이 극찬한
바로 그 책!

도시통류(道是通流). 육조혜능 스님은 진리니, 삶이니, 길이니 하는 것을 툭 터져 흐르는 것이라고 했다. 한순간도 걸림이 없어 툭 터져 있어야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 출가 40년의 지혜가 담긴 이 책은 툭 터져 흘러들지 않는 곳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보는 안목을 열어 줄 것이다.



출가 40년,
'힐링 멘토의 원조'
마가 스님의
진정한 인생 수업

삶의 완성으로 가는
'어른의 조용한
행복'을 발견하다!

힘든 감정을 흘려보내고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법

마가 지음
352쪽 | 20,000원

어른이 되는 —— 흐름의 기술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운력으로 세운 청빈의 계율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② 율장과 보청법에 나타난 노동

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백장 선사–



율장에서는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만, 선종의 발전을 통해 수행의 일환으로 자리 잡은 운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사진은 부산 흥법사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김장 운력. **현대불교 자료사진**

자급자족 위해 노동과 수행 병행한 선종

지난해 11월 해인사에서 겨울 한 철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한 김장 운력(運力) 과정이 EBS TV를 통해 방영됐다. 불가에서 운력은 어느덧 승가의 전통적인 행사와 문화로 자리 잡았고, 여러 방송 매체에서는 수행과 운력을 함께 하는 출가자의 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

운력과 일반적인 노동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혼자가 아니라 사찰 대중이 함께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어른 스님들은 "대중이 운력을 하면 송장도 벌떡 일어난다", "대중 운력에는 부지깽이도 따라 나온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이는 운력이 수행자라면 응당 해야 하는 일임을 강조한 말일 것이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파를 형성해 화엄종, 천태종, 율종 등이 생겨났다. 이들 종파 중 비교적 가장 늦은 시기에 나온 것이 선종(禪宗)이다. 이미 성립된 다른 종파에 비해 선종은 국가 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자급자족을 위한 노동과 수행을 병행해야 했다.

선종이 독립된 종파를 이루기 전에는 율종 사찰에서 함께 생활했다. 율종 사찰에서 생활하던 선사들은 율장의 현실적 실천에 부담을 느껴 독립해 선종을 일으켰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율장을 근본으로 하는 율종에서는 노동을 엄격하게 금하기 때문이다.

율종에서 독립한 선종은 모든 대중이 평등하게 작업하는 보청법(普請法)을 보편화하고, 생활 규범과 의식 절차 등 실천 가능한 규칙을 새롭게 제정해 청규(淸規)를 만들었다. 또한 보청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노동과 선을 하나의 수행으로 보게 됐고 자급자족하며 생활하는 불교 교단으로 자리 잡았다.

폐불 사건에도 운력으로 살아남아

선종이 자급자족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당나라에서 안녹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대규모 전란인 '안사의 난'이 755년 12월부터 763년까지 일어났다. 당시 불교의 상황 역시 매우 좋지 않았는데,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승려 자격증을 판매하는 도첩 행위로 승가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일로 불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선종은 자정 노력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급자족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력은 자연스럽게 일상화됐고 승가 구성원들 또한 운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 같은 생활방식은 후대에 일어난 폐불 사건 속에서 선종이 살아남는 결과를 낳게 된다. 9세기 말 당나라 무종 때 일어난 '회창폐불(845년)'로 4600여 개 사찰이 폐사되고 승려 26만여 명이 환속하는데, 보청법과 청규를 기반으로 자급자족하던 선종은 희생을 피할 수 있었다.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사원 경제의 확장은 도첩제와 더불어 회창폐불의 원인 중 하나였는데, 선종은 자급자족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승가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다.

보청법과 '노동 금지' 율장의 차이

백장 선사의 일화를 통해서도 운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새겨볼 수 있다. 백장 선사는 매일 운력 시간이 되면 다른 대중들보다 먼저 나와 일했다.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주지가 하루는 노동에 쓰이는 연장을 감추고 휴식하기를 청했다.

그러자 선사는 "내가 아무런 덕이 없는데, 어찌 남들만 수고롭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날 공양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백장 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굴지계 인연담에 나타난 노동 금지
생명 보호 위한 경작 제한 의미 담겨
검소·청빈 생활 영위해야 하는 승가
운력 통해 자급자족 청정한 모습 보여

이때 제정된 것이 농선병중(農禪幷重)인 보청법이다. 하지만 선종의 보청법은 앞서 언급했듯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율장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다.



원주의 주관 아래 나물을 말리는 스님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율장에 의하면 비구가 노동이나 땅을 파는 행위를 하면 바일제를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붓다가 이러한 율 조문을 제정한 까닭은 승가 구성원의 생활방식이 유행 생활에서 정주 생활로 변화한 까닭이다.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녹야원의 다섯 비구를 제도한 이후에 성립된 승가는 주거지 없이 유행하는 생활을 했다. 그러다 빔비사라왕에게 최초의 사찰인 죽림정사를 기증받은 후부터 정주 생활을 하게 된다. 정주 생활로 비구는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고 나무를 베는 등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금하는 다음과 같은 율 조문이 제정된다.

Yo pana bhikkhu paṭhaviṃ khaṇeyya vā khaṇāpeyya vā pācittiyaṃ.
若比丘 自手掘地 若教人掘者 波逸提.
어떠한 비구라도 땅을 파거나 혹은 (타인으로 하여) 땅을 파게 하면 바일제이다.

생명 보호 위해 노동 금지

붓다가 율 조문을 제정하면서까지 노동을 금지한 까닭은 바일제 10조 굴지계의 인연담을 통해 알 수 있다. 비구들이 정사를 수리하면서 스스로 땅을 파고 다른 이에게도 땅을 파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석가의 제자들이 땅을 파고, 남에게도 땅을 파게 하는가? 석가의 제자들은 일근(一根)의 생명을 해친다"라고 비난했기에 이러한 조문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조문에서는 설명되지 않지만 율장의 부가적인 조문 해석에 의하면, 붓다는 땅을 생지와 불생지로 구분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생지는 식물의 성장에 적당한 토지인데, 이 토지를 호미나 가래로 자르거나 망치로 때리거나 낫으로 찌르거나 혹은 손가락으로 찔러도 바일제가 되며, 이러한 토지에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고 한다.

즉, 식물의 성장이 가능한 토지를 경작할 때 생지에 살던 생명체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정된 것이다.

바일제를 범한 비구는 두 명 내지 세 명의 청정한 비구에게 참회하면 청정한 비구로 회복할 수 있다. 참회로 청정해진 비구는 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수행 전념을 위한 율장 조문

비구를 대신해 사원에서 노동을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를 '정인(淨人)'이라 한다. 정인에게 일을 시킬 때에도 비구는 정어(淨語)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를 파라"는 말은 계를 범하는 말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고, "이것을 알라. 이것을 주어라. 이것을 움직이고, 이것을 원한다"와 같은 정어로 작업을 요청해야 한다. 율장에 나타나는 정법은 율의 조문 변경이 어려운 당시 현실에서 생겨난 최선책이었을 것이다.

붓다는 비구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죽인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노동하기보다는 수행에 매진하기를 바라며 조문을 제정했을 것이다. 이 조문이 없었다면 비구들은 농사를 짓거나 땅을 개간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되는 일을 했을 것이다. 또한 생명을 사고팔거나 노역을 하는 등 이익을 위해 수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세속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세속 사람들로 하여금 수행자로서의 믿음과 공경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비록 율장에서는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만, 선종의 발전을 통해 수행의 일환으로 자리 잡은 운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생명 중시의 불교 정신은 지키되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승가는 운력을 통해 대중들에게 청정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재가자들은 그로 인해 운력의 진정한 의미를 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석탑·불상들은 왜 박물관 전시품이 됐나

성보유랑 聖寶流浪

② 조선물산공진회와 불교문화유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시정 5년간 조선 산업의 진보를 전시하고 신구 시정(新舊施政)의 성적 여하를 비교 대조하여 생산품의 우열을 심사 고핵(審査考覈)하여 당업자(當業者)로 하여금 더욱 그 사업에 정려(精勵)하고 근검 역행(勤儉力行)으로써 시설의 개량을 도모하고 산액(產額)의 증진에 노력해 조선의 부력(富力)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매일신보〉 1915년 7월 13일자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성(현 서울)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대대적인 홍보·전시 행사가 열린다. 이름하여 '시정오년조선물산공진회(이하 공진회).' 공진회라고 하면 낯설 수 있는데, 쉽게 박람회라고 이해하면 된다. '시정오년'은 일제가 조선을 병탄한 뒤 5년간의 치세를 의미한다. 정리하면 공진회는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뒤 성과와 치적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일제는 1907년 개최했다가 실패한 경성박람회의 만회와 근대화를 통한 조선인 동화, 조선 지배의 정당화를 꾀하려 했다.

그러다 보니 조선총독부는 공진회의 성공을 위해 〈경성일보〉 〈매일신보〉 〈조선휘보〉 〈신문계〉 등과 같은 언론 매체와 잡지를 적극 활용·선전했다. 특히 한반도 전역에서 유물과 물품 수집과 관람객 유치에 전력을 쏟았다. 각 지방 행정 조직과 민간단체 등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물품 출품을 적극 권장했고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시설, 교통편 등이 제공됐다. 공진회 개최 3개월 전에는 '공진회 관람단체'가 조직돼 9월 2일에는 각 지방에서 관람단이 상경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선총독부의 노력(?)으로 공진회에는 4만444점의 물품이 전시됐고, 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개최 기간 동안 관람객 수는 116만6383명에 달했다.

불상 · 석탑, 공진회 성공 위해 반출

공진회의 성공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을 자신들 입맛대로 허물고 개조했다. 공진회장은 근정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을 제외하고 건물들을 헐어 마련했다. 이곳에는 제1호관, 제2호관, 기계관, 영림창특설관, 심세관, 철도국특설관, 동양척식특설관, 미술관이 들어섰고 편의시설로는 분수대와 음악당, 양어장 등이 조성됐다.



조선총독부박물관 야외공간을 장엄하고 있는 석탑들.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 개성 남계원지 7층석탑, 이천 안흥사지 5층석탑이 확인된다. 뒤편의 하얀 건물이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앞서 공진회미술관으로 건립됐다.

1915년 시정오년조선물산공진회
경복궁 헐고 일제강점 5년 기념
야외에 반출된 석탑 6기 전시해
내부 미술관엔 경주 석불들 들여
공진회 이후 총독부박물관 전환
야외 전시공간 채우려 성보 반출



1915년 시정오년조선물산공진회 홍보 포스터.

공진회미술관에는 1902·1909·1912년 세키노 다다시와 야쓰이 세이이치 등의 주도로 이뤄진 한반도 고적 조사 등에서 확인됐던 유물을 반출해 전시회를 구성했다.

'한국박물관 역사 회고와 한국박물관 발전을 위한 전망'(최석영)에 따르면 미술관 본관 1층 중앙에는 경주 남산 삼릉곡에 있던 약사여래좌상을 가져와 안치했고 좌우 협시로 감산사 석불입상 2구가 배치됐다. 중앙홀 양측 벽에는 석굴암 부조상 14체의 등신대 석고모형이 설치됐으며 천장에는 천인상을 그렸다. 미술관 본관 앞에는 강원도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을 중심으로 석불과 철불들을 배치했다.

"산뜻한 이(공진회) 정원에는 신라와 고려시대의 사리탑과 석불, 철불들이 배치했다. 음악당을 사이에 두고 그 남북에 있는 것은 이천의 삼계공양탑이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오층탑을 원주의 보제존자탑, 칠층탑을 개성의 봉경탑, 북쪽에 있는 것을 원주의 현묘탑이라 하는데 조각이 가장 정교하고 뛰어나며 이를 중심으로 대일여래의 석상 2존, 문수 및 미륵의 철제좌상 2존을 사방에 배치했던 바 어느 것이나 모드 고색창연하여 천고의 조각에 해당하는 물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조선휘보〉 1915년 10월호의 '공진회 기사'의 내용 중 일부로 공진회 야외전시공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이 같은 문서와 사진자료 등을 종합하면 공진회 개최 기간 동안 야외공간에는 총 6점의 석조문화유산이 전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최선일,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야외 전시 석조문화재 연구') 순서는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나옹 화상)사리탑(1기)-개성 남계원지 7층석탑-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1기)-이천 안흥사지 5층석탑-이천향교 5층석탑-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순이었으며 미술관 옆에는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부도와 탑비**가 전시됐다.

공진회는 끝났어도 박물관은 남았다

3개월여의 공진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시가 마무리됐으니 출품됐던 성보문화유산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결론은 돌아가지 못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은 화려한 조형으로 일본인 개인병원 및 저택의 장식재로 사용되다가 공진회에도 출품돼 야외공간을 장엄했다.

아예 공진회만을 위해 반출됐던 이천향교 옆 5층석탑은 거대 재벌인 오쿠라 기하치로에게 양도돼 현재까지도 오쿠라호텔 슈코칸(集古館) 야외 장식재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공진회에 출품됐던 성보문화유산들은 박물관 소장품으로 전락했다. 공진회의 폐막을 앞둔 1915년 10월 18일 제29회 공진회사무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다.

"(공진회)미술관은 11월 1일부터 박물관이라 하고 총독부 총무과에 인계해 경복궁 내 일대는 박물관 부속으로 하며 총무과가 관장한다. 박물관은 정리를 위해 11월 중 폐쇄하고 12월 1일부터 개관한다."

이렇게 '공진회미술관'은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명칭과 직제가 변경·운영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순우 작가는 저서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보고서2〉에서 "당초 공진회미술관 건물은 단순히 공진회의 전시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차 총독부박물관으로 용도를 변경해 오래도록 사용하겠다는 뜻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확언했다.

2층으로 지어진 미술관은 그간 수집했던 유물을 전시·수장하기에 그 공간이 너무 협소에 궁궐의 전각들을 전부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광활한 경복궁 야외 정원을 활용한 총독부 야외전시공간은 황량하기만 했고, 이를 채우기 위한 성보 반출들이 빠르게 이뤄졌다.

갈항사지3층석탑(이하 반출연도·1916년), 보리사대경대사현기탑비(1916년)를 시작으로 **△봉림사진경대사보월등공탑비(1919년) △봉림사진경대사보월능공탑(1919년) △월광사원랑선사탑비(1922년) △정도사5층석탑(1924년) △중흥산성쌍사자석등(1931년) △염거화상탑(1934년) △흥법사진공대사탑(1934년)** 등이 꾸준히 반출돼 경복궁 야외 공간에 전시됐다.

공진회는 끝났지만 박물관은 남았다. 박물관은 방치되던 석탑과 불상들을 보존을 이유로 경복궁 야외공간으로 옮겼다. 이렇게 옮겨진 성보들은 지금도 박물관 한편을 장엄하고 있다.

성보유산의 유랑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한다.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66호 | 14 | 전면광고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능가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산사
- 대지 : 200평
- 법당 : 70평 외 전각 2
- 시내 산 밑, 주차 10대
- 매가 : 35억

- 위치 : 경북 대구시 사찰
- 대지 : 240평
- 법당 : 70평, 요사 : 70평
- 시내, 주차 10대 가능
- 매가 : 9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1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4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있는 주차공간있음
- 토지 140㎡, 건물 146.62㎡ 1층 73.31㎡, 2층 73.31㎡
- 매매 : 2억5천만원

010-9811-487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230평
- 법당. 산신각
- 주차 5대 가능
- 공양간 약 20평
- 금액 : 2억3천답사후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장소 : 여주시 점동면 산사
- 대지 : 703평
- 대웅전, 진신사리 3층석탑,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종무소
- 상수도, 지하수, 전기 (태양광 포함 13K)
- 양도가액 : 6억원

010-5481-2560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 3분(평지)
-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건물 50평
- 이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스님, 법사님, 보살님, 무속인 모두 환영
- 보증금 2천/월 40만(시설비 없음)
- 몸만 오시면 법회 및 주차 가능함

010-3574-3303
010-7121-3030

사 찰 안 내

- 명당절터 150평
- 뒷산 앞 청정 바다가 보임
- 전기, 물 완비
- 가액 : 대출 1천5백안고 1억 3천 5백만원
-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528번지

010-8643-5235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3198-1730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66호 | 15 | 전면광고

이 세상에 고통 받는 중생들이
끝없이 많으니 내 부처 되어 마지막
한 생명까지 기어이 건지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본행집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천도재·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지리산 암힐링센터
동업 하실 분
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자연치유대체요법
위빠사나 법사 구합니다
010-4474-8418

손도사성공론 책 꼭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부전 스님 구합니다
010-2078-9595

만불종 무료장학 모바일 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 기간 : 26년 3월
▮자격 장소 : 남녀 누구나 집, 사암, 직장 등
▮학과 사주, 육효 한글작학등 25과
사무장모집 / 요양사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인 환영
Dam NAVER 역학대통령
907-5858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157기 철학수련생 모집
달마대사의 사주비전과 만세력 세계를 집필한 선사께서 직강 및 개인지도함
- 수련생 자격 : 주지스님 및 비구, 비구니, 불보살

신생아 작명 및 개명, 사업명, 회사명이 필요한 분은 기업은행 012-027395-01-017 달마사로 입금 후 전화요망
010-4466-4804
포교원 공간 임대 주실 분 상기 전화 요망

찻집 운영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 종목:쌍화차 전문, 그외 수제차
- 가옥구조: 건물 1, 2F 각 50평씩, 100평/권리금 유/조율가능
- 월세보증금:3000/150만(부가세별도)
※ 스님이 5년째 운영 중
010-2626-5155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향로용 유리알 수정모사(향운정주)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해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부탄 ESG 포럼에서 본 한국불교의 가치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ESG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월 9~10일 부탄에서 열린 '제2회 부탄 국제 ESG 포럼'에 참가한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는 현장에서 살핀 ESG 담론의 확장 가능성과 한국불교에 주는 함의를 담은 기고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1월 9~10일 부탄에서 열린 '제2회 부탄 국제 ESG 포럼'은 부탄의 ESG 구조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한국불교의 철학과 유산 가치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사진은 원걸 스님이 '불교 생태 철학과 한국불교 환경적 활동'을 주제로 기조강연하는 모습.

'제2회 부탄 국제 ESG 포럼'
더 나은 사회 위한 공동체 담론

불교의 가치, ESG 요소와 직결
'공공 가치와 자산'으로 재해석

기후위기·정서 치유·신뢰 회복 등
문제 해결 위해 불교 珙 재조명해야



'제2회 부탄 국제 ESG 포럼' 참가자들의 기념 촬영. 사진 제공=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부탄의 ESG 확장 시도

한국부탄우호협회와 부탄신탁기금(Bhutan Trust Fund, BTF) 등이 공동주최한 '제2회 부탄 국제 ESG 포럼'은 한국·부탄 정부 관계자, 불교계 대표, 학계·ESG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탄 팀푸 왕립대학교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희동 연세대 특임교수가 '기후변화 영향과 부탄의 자연재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원걸 스님(조계종 국제교류위원)이 '불교 생태 철학과 한국불교 환경적 활동'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와 함께 '부탄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기업 탄소중립 정책 대응과 경영 전략'을 주제로 세션 발표도 진행됐다.

경제 규모나 군사력보다 행복·환경·문화 가치를 국가의 정책 구심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독특한 위상을 확보한 부탄(Kingdom of Bhutan)에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2회 부탄 국제 ESG 포럼'에 참석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부탄은 히말라야 동부에 자리한 인구 약 78만 명 규모의 작은 나라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을 헌법과 정책 전반에 제도화한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국가다. 또한 부탄은 불교적 세계관과 히말라야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이 결합된 나라, 급격한 산업화와 개발로 인한 사회 해체와 환경 파괴를 예방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취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포럼의 주제인 ESG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 구조(Governance)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ESG는 조직의 '착한 경영'만이 아니라, 미래 공공 편익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비재무적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공동체의 노력을 대표하는 담론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은 규모와 내용, 운영 등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ESG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부탄과 같은 작은 국가의 경험이 국제 ESG 담론에서 중요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또한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개념과 연계한 ESG 구조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한국불교의 철학과 유산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포럼에서 부탄 전문가들이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ESG가 더 이상 조직 관리와 평가의 영역에만 머물 수 없으며, 인간과 사회·자연·문화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삶의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분절된 정책, 고성장 중시, 정부 주도, 단기 성과 중심의 대응은 한계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교에 담긴 ESG 가치

불교와 ESG의 관계는 연계나 협력이라는 지엽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불교는 ESG 개념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생활 체계로 다뤄온 문명적 전통이기 때문이다.

사찰과 그 주변 자연은 문화경관일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저장고이자 탄소흡수은행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ESG의 '환경(E)'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사찰은 탄소 흡수, 생태 연결성 유지, 기후 적응 기능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불교의 절제와 중도 사상은 과잉 소비와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는 윤리적 기준으로 작동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환경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묵묵히 해왔다.

불교가 지닌 사회적 가치는 오늘날 더욱 절실하다. 최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 대중의 정서적 불안 등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명상, 수행, 자연환경이 결합한 사찰의 정서적·심리적 치유 기능은 현대인들의 희소한 정서 회복 인프라인 동시에 사람과 경제의 흐름을 견인하는 중요한 선순환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불교의 가치와 기능은 ESG의 '사회(S)' 요소와 직결된다. 불교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 돌봄과 연대를 실천해 온 긴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사회적 자본 가치 구조가 취약해진 우리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SG의 '지배구조(G)'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불교의 수행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책임성과 신뢰성을 중시해 왔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 성과에 집착하는 현대 조직 운영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합의와 숙의, 절제된 권한 행사는 ESG가 지향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과 깊이 연결된다. 종교적 권위와 위엄이 아닌, 신뢰와 믿음의 전통은 사회의 공공 거버넌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 준다.

'불교 ESG' 구조화 필요

이처럼 한국불교의 철학과 유산은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분절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인구 감소, 기후위기, 정서적 불안정과 사회 불균형 등의 위기가 엄습하는 이 시대에 불교의 철학과 유산 가치는 현대적인 '공공 가치와 자산'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불교의 본질적 가치를 대중과 사회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구조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가 전통적으로 지녀 온 ESG 개념을 현대사회의 언어로 다시 묻는 '불교 ESG의 구조화'를 의미한다.

국민 행복 견인할 '사회적 자산'

관건은 한국불교가 지닌 ESG적 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회적 언어로 재정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불교의 환경·사회·지배구조적 가치는 이미 오랜 시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동해 왔지만, 이를 체계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 발전 전략의 일부로 연결하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는 불교를 단순한 신앙의 영역이나 문화유산 보존의 대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회복, 정서 치유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동시에 떠받칠 수 있는 전략적 공공 자산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불교의 생태 윤리와 공동체 정신, 책임 있는 운영 전통은 단기 성과에 매몰된 성장 논리를 넘어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한국불교의 ESG적 가치를 사회가 공유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때, 이는 종교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민 행복을 함께 견인하는 핵심 자산으로 기능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한국불교의 가치를 이 시대의 언어와 구조 속에서 정확히 재배치하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ESG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한 연결의 틀이 될 수 있다.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
(전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

보살의 인간화로 수행자 길 제시하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③ 제천 신륵사 극락전 문수보현동자벽화



제천 신륵사 극락전 동측면(향우측) 문수동자벽화.



제천 신륵사 극락전 서측면(향좌측) 보현동자벽화.

동자형 보살의 탄생, 보살의 인간화

세계 불교미술사에서 문수·보현보살을 어린 동자로 표현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인도나 티베트, 동남아시아에선 전무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선 유사한 모습이 몇 장면에서 보인다. 그마저도 청년이나 젊은 성인의 모습이다. 한국의 문수보현동자처럼 앳된 아이 모습의 표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불교 조형미술만의 독창적인 형식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문수보현동자도는 세계 불교미술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왜 그런 동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는가를 묻고 답해야 한다. 삼국 시대에도, 불교국가 고려 시대에도 동자형 보살도상은 보이지 않는다. 15세기 조선에 들어와 첫 형상을 만난다. 1466년 세조의 왕명으로 도상을 그리게 하고 제작한 오대산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이 그 주인공이다. 왜 문수보살이고 동자상으로 조성했는가? 오대산은 바로 문수보살 신앙의 성지이고, 세조가 피부병을 고친 가피의 서사가 동자로 현현한 문수보살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다. 세조는 계곡에서 자신의 등을 밀어준 동자의 얼굴을 그리게 했다. 동자는 세조에게 자신이 문수보살임을 밝혔다. 즉, 오대산 문수보살 성지신앙과 세조의 문수동자 가피 서사가 결합한 역사적 체험 산물로서 동자형 문수보살이 등장한 것이다. 세조의 왕명과 왕실 발원으로 새로운 보살상이 탄생했다. 화려한 보관을 쓴 초월적 존재로서의 보살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장식 없는 민머리를 쌍상투식으로 묶음머리를 한 동자형 보살이 탄생했다. 그것은 전례가 없는 보살의 인간화였다.

금강문 속 문수보현동자상의 등장

문수동자상은 필연적인 대응으로 보현동자상과 병행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이의 한 쌍, 문수보현동자상으로 출현했다. 한 쌍으로 정립된 모습은 7년쯤 지난 1473년 무렵이었다. 그 주인공은 영암 월출산 도갑사 해탈문에 봉안한 문수보현동자상이다. 제작 시기 논란도 있고, 오대산 문수동자상과 연결 고리도 밝혀진 바 없다. 법당도 아닌 사찰 진입 공간인 삼문 중의 한 곳에 신앙 대상인 초월적 존재를 봉안한 것은 파격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형식은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보편 형식처럼 확산했다.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찰을 중창하는 대규모 불사 과정에서 정형 형식으로 조영됐다. 17세기 중엽 대규모 중창 불사의 중심엔 병자호란과 그 후에 승군 조직을 통솔했던 팔도도총섭 벽암 각성 스님이 계셨다.

세 차례 이어진 전쟁은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다. 나라와 불국토를 수호하는 강력한 물리력 구축이 사찰 재건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수호신장에 감히 넘볼 수 없는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고 육중한 몸으로 체격을 극대화했다. 또 법당의 성소까지 여러 관문을 거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일주문-금강문-천왕문 형식의 삼문 형식이 정착하고, 전에 본 적이 없는 거대한 사천왕상이 조영됐다. 갑옷과 무기를 무장한 거인들이 등장했다. 동시에 금강문엔 천하무적의 금강역사를 좌우에 배치해 온갖 마장과 외침을 물리치는 강력한 정토수호 물리력으로 삼았다. 금강문에 금강역사, 천왕문에 사천왕상을 이중, 삼중의 외호 물리력으로 세워 산사가람을 삼엄하게 성역화했다.

이때 금강문에 한국 불교미술 특유의 형식이 확립되고 확산됐다. 금강역사와 문수보현동자상을 함께 봉안하는 정형을 영조법식의 규범처럼 정립한 것이다. 금강문에서 동(향우측)-밀적금강(훔금강역사)-청색 사자 탄 문수동자, 서(향좌측)-나라연금강(아금강역사)-흰색 코끼리 탄 보현동자의 구도가 정착했다. 이 구도는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구례 화엄사 금강문, 김제 금산사 금강문, 완주 송광사 금강문, 하동 쌍계사 금강문, 보은 법주사 금강문(동자상이 아니라 보살상으로 표현한 사례다), 공주 마곡사 해탈문과 영암 도갑사 해탈문에서 엄격히 구현됐다. 물론 약간의 변용은 있지만, 그 정형을 변형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동자형 보살은 상원사에서 첫 등장
금강문에 금강역사와 두 동자상 봉안
벽암 스님 중창불사 지역에 집중 분포
현존하는 문수보현벽화 중 최대 크기

그 대부분의 사찰 조영은 한결같이 벽암 각성 스님의 불사 재건 활동 공간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전쟁의 폐허 위에 모든 것을 새로이 구축해야 했다. 호국불교의 위상으로서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금강역사와 사천왕상을 조성했다. 동시에 전쟁 기간 치켜들었던 피 묻은 칼을 땅속 깊이 묻고 수행자의 길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깨달음의 길, 자리이타 자비행의 길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수행자상이 요구됐다. 그것은 불퇴전의 다짐처럼 강고하기에 가람의 맨 앞자리에, 그리고 금강의 자리에 함께 배치했다. 문수보현동자상을 금강역사가 있는 금강문에 함께 봉안한 것이다. 동자상은 초발심과 순수, 청정한 마음과 상통하는 상징적 존재였다. 한국 불교미술에 수행자의 길을 제시하는 인간화된 보살상, 즉 문수보현동자상이 온전히 정립됐다. 청색 사자를 탄 문수동자상, 흰색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상의 정형이 확립된 것이다. 그것은 세계 불교미술사에서 유례가 없는 도상이며, 파격적인 유일무이한 구도였다.

현존하는 문수보현동자벽화 총 21곳

한국 불교미술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문수보현동자벽화도 그 조형 정립의 연장선에 자리한다. 중심 불전 좌우 벽면에 대형화면을 조성해서 문수보현동자 한 분씩 독립적인 대형벽화를 조성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장면이다. 그것도 궁극의 초월자 모습이 아닌 천진난만한 동자 수행자의 모습이라니! 그 장면의 모티프는 어쩌면 〈화엄경〉에서 성불의 구도행을 실증해 보이는 선재동자에 접목한 것인지도 모른다. 선재동자가 성불의 길을 보여 준다면 문수보현동자는 수행자의 길을 보다 대중적으로 일깨워 준다. 문수보현동자 벽화가 쌍으로 현존하는 곳은 총 21곳으로, 대구 용연사 극락전과 영광 불갑사 대웅전의 경우 코끼리 탄 보현동자도만 창방 등에 남아 있지만 원래는 함께 그려졌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두 곳까지 포함하면 전국 23곳에 문수보현동자벽화가 분포하는 셈이다.

그중 대표적인 문수보현동자벽화는 영덕 장육사 대웅전 벽화, 제천 신륵사 극락전 벽화, 김천 직지사 대웅전 벽화 등 세 곳의 대형벽화다. 화면 크기는 신륵사(평균 세로 229㎝×가로 179㎝), 직지사(평균 141㎝×257㎝), 장육사(평균 130㎝×204㎝) 순으로 크다. 직지사와 장육사 화면은 가로가 긴 형태로 안정감을 준다. 반면 제천 신륵사 벽화는 화면 크기도 현존하는 문수보현동자벽화 중에서 최대이려니와 세로가 길어서 벽화에서 수직 특유의 힘이 뻗친다. 제천 신륵사 문수보현동자벽화는 종교교의, 예술미학, 불교미술사 등에서 세계 불교미술사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색채의 미 문수동자도, 형태의 미 보현동자도

신륵사의 두 동자벽화는 '좌청룡 우백호'의 동양철학 규범을 따르고 있다. 동-청색 사자 탄 문수동자, 서-흰색 코끼리 탄 보현동자로 배치해서 방위와 단청색을 법식에 맞게 통일했다. 두 벽화를 그려 나간 붓질은 탁월하다. 기운생동한 에너지가 화면에 충만하다. 두 동자는 체격, 옷차림, 표정, 자세 등 전반적으로 쌍둥이처럼 닮았다.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이나 앉은 자세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질 뿐이다.

문수동자가 붉은 연꽃 가지를 양손에 들고 있다면 보현동자는 오른손으론 경전으로 보이는 책을 펼쳐 들고 왼손으론 흰색 연꽃 가지를 들어 어깨 위에 걸쳐 두고 있다.

바라밀행의 실천적 힘은 지혜에서 나온다. 지혜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고, 실천 없는 지혜는 공허하다. 지혜와 실천은 불가분이다. 유희좌 형식으로 앉은 자세에서도 한 동자는 오른다리를 늘어트렸고, 다른 동자는 왼 다리를 내린 차이의 정도밖에 없다. 보현동자도가 형태 묘사력이 탁월하고 화면공간과 여백을 경영하는 '경영위치' 감각이 뛰어나다면 문수동자도는 대상에 조화로운 색채를 베푸는 '수류부채' 능력이 돋보인다. 수류부채 능력은 잘 빗질된 사자의 갈기에 입힌 색채에서 한눈에 드러난다. 턱 밑과 입가의 터럭 한 올 한 올에, 등의 갈기에 오채의 빛을 정성 들여 올려 현실 너머의 서수로 승화시켰다. 오채색의 조화로운 배색을 통해 사자의 초현실성을 살려 냈다면 코끼리에선 형태의 묘사에서 신령한 서수의 감각을 이끌어 냈다. 여섯 상아의 표현과 함께 등과 꼬리에 길게 늘어트린 긴 털은 코끼리를 신령한 존재로 끌어올린다.

외곽선을 그려 나간 묘법은 선의 굵기에 강약 리듬을 가진 유엽묘를 구사했다. 유엽묘의 선묘법은 바람 타는 천의 자락의 율동적이며 우아한 곡선 흐름에 리드미컬한 탄성력을 불어넣는다. 선, 형태, 색, 어느 하나 부족한 측면이 없다. 불교미술사적 의의를 떠나서도 예술미학 차원에서도 대단히 힘 있고 부드러우며 세련된 명작이다. 예술에서 힘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춘다는 것은 '따뜻한 아이스커피'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일이다.

두 동자의 벽화에 나부끼는 천의 자락은 깊은 인상을 남긴다. 붉은색 면과 푸른색 면이 뫼비우스 띠처럼 앞뒤 구분이 없다. 앞이 뒤이고 뒤가 앞이다. 불이(不二)의 교리가 녹아 있다.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바라밀 실천행은 둘이 아니다. 깨달음의 길은 지혜로써 건너고 바라밀행의 실천으로써 완성하는 법이다. 문수보현벽화의 불립문자로 전하는 직지(直指)다.



노재학 작가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수 천번의 내 염불이 내 귀에 신명으로 힐링되니 보물이 따로 없다.

본 마이크는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만 본사 유선 마이크로 소리만 비교시 귀 법당의 마이크 가격이 수 백만원이라도 본사 마이크와 비교시 놀라운 차이 확인!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가격 50만원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60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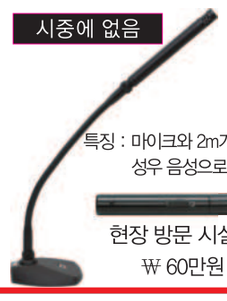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현장 방문 시설가격
₩ 6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60만원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시, 불교를 만나다

㉖ 조고각하(照顧脚下) : 고은의 '그 꽃'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효봉 선사 제자가 된 시인
시 통해 자기 성찰 수행자 태도 보여
'그 꽃'에 시선의 전환 깨달음 담겨

불교대학 법당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마음 쓰는 일이 있는데, 바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발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면, 반듯하게 놓아 달라고 진행 요원에게 부탁하곤 한다. 이곳에 대한 첫인상이 중요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신발 하나 정리 못 하면서 무슨 마음공부냐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트러진다. 절이든 집이든 신발을 가지런히 벗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신발 정리가 몸에 밴 불자들은 법당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의 신발도 함께 반듯하게 놓는다. 신발 정리하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벗어 놓은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발이 곧 마음인 셈이다. 절집에서 신발 벗는 일 또한 마음공부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찰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인 댓돌을 종종 발견한다.

'조고각하(照顧脚下)'

글자 그대로 자기 발밑을 비추어 돌아보라는 뜻이다. 직접적으로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 놓으라는 의미여서 사찰 공양간이나 선방, 법당 입구에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 간단하고 쉬운 일 하나 못하면서 자기 성찰 운운하는 것은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은 시인의 '그 꽃'을 읽다가 문득 조고각하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산에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한 꽃을 내려갈 때 보았다는 아주 짧은 내용의 시다. 등산할 때는 시선이 위를 향하기 때문에 아래를 보기 어렵지만 하산할 때는 자연스레 발아래를 보게 된다. 아마 그때 시인의 눈에 꽃이 보였던 것 같다. 시인에게 작은 깨달음이 다가온 순간이다. 그리고 질문이 이어진다. 왜 산에 오를 때 우리의 시선은 위쪽을 향하는 것일까?

고은은 노벨문학상이 발표될 시기가 되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시인이었다. 수상 소식을 기다리면서 기자들이 시인의 집 앞에 진을 치고 기다렸지만, 매번 예측과 기대는 엇나가고 말았다. 그 대신 2024년 한강 작가가 상을 받으면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노벨문학상 작가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

시인은 젊은 시절 출가해서 10여 년 동안 승려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당시 법명은 일초(一超)였는데, 통영 미래사에 주석하고 있던 효봉(曉峰, 1888~1966) 선사를 찾아가 제자가 된다. 선사는 통합종단 초대 종정을 지낸 고승이다. 무소유로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의 스승이기도 하다.

고은 시인은 1958년 조지훈과 서정주의 추천으로 〈현대시〉, 〈현대문학〉 등에 '폐결핵', '눈길'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등단하게 된다. 1960년 첫 시집 〈피안감성〉을 출간한 이래 16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양의 저서를 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갔다. 또한 그의 수많은 시집이 영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20여 나라에 번역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974년 심훈문학대상을 비롯해 만해문학상, 단재문학상, 대한민국예술원상, 은관문화훈장을 받는 등 명성에 걸맞게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서울대 초빙교수 및 단국대 석좌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현재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오늘 소개할 시 '그 꽃'은 2001년 출간한 〈순간의 꽃〉에 실린 작품이다. 출판사는 "순간순간의 무궁 속에서 시인이 맛본 감응과 깨달음이 선(禪)과 시(詩)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타고 터져 나온다"고 소개한다. 시집에는 185편의 짧은 시들이 수록돼 있는데, 특이한 점은 모두 내용만 있을 뿐 제목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시 또한 제목이 따로 없어 대중에게 알려진 '그 꽃'이라 했다. 직접 들어 보기로 하자.

"내려갈 때 보았네 / 올라갈 때 보지 못한 / 그 꽃"

발밑을 보라

이 시를 읽으면서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보였다. 내려갈 때 본 꽃을 오르면서 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산을 오를 때 꽃을 보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의 시선이 정상이 있는 위쪽을 향하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의 삶에 연결해 보면 그 의미가 절대 가볍지 않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어른들이 말하곤 한다. 그런데 정작 대학에 가면 취직이 목표로 바뀐다. 취직하고 나면 승진이, 승진하면 집 장만이, 그다음엔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목표 지점에 우뚝 서 있다.

이처럼 지금의 순간이 어떤 목표를 위한 과정뿐이라면, 그 당시 보고 느껴야 할 것들을 지나칠 수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말 못 할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우정을 쌓는 일 등 말이다. 그런데 대학 입시라는 목표 앞에서 이런 일들은 별거 아닌 것이 되고 만다. 대학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명분이 가로막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에 가면 취업을 위해 뭔가를 또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과정뿐인 현재를 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주변에 핀 꽃을 돌아보지 못한 채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렇게 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 즉 조고각하다. 여기에서 발밑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멀리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뜻이다. 원래 이 말은 송나라 때 고승으로 알려진 오조법연(五祖法演, 1024~1104)과 제자인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의 일화에서 유래한다. 어느 날 오조법연이 제자들과 함께 캄캄한 밤길을 걷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초롱불이 꺼지게 됐다. 이때 공부가 얼마나 됐나 시험하고 싶었던 스승은 제자들에게 묻는다. 이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신의 공부 밑천이 전부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때 원오가 스승에게 말한다.

"발밑을 살펴봐야 합니다[看脚下]."

단순하면서도 질문의 핵심을 관통하는 멋진 답변이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살겠다는 수행자의 진솔한 태도가 느껴진다. 이처럼 발밑을 보면서 살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던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앞을 향하기 때문에 아래를 보기 어렵다. 그렇게 정신없이 정상을 향해 오르다가 때론 발을 헛디딜 때가 있다. 그때 잠시 숨을 고르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꽃이나 산이 눈에 들어온다. 쉼과 여유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고은의 시 한 편 감상해 보자.

"노를 젓다가 / 노를 놓쳐버렸다 /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보았다"

앞서 소개한 〈순간의 꽃〉에 나오는 짧은 시다. 노를 저을 때는 노만 보였는데, 이를 놓치자 비로소 넓은 강이 눈에 들어왔다는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처럼 가끔은 노를 놓치거나 발을 헛딛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산에 오르는 이유는 정상에 행복이라는 선물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발밑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겠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과 마음이 늘 분주하다. 이제 시선을 머리 위가 아니라 발밑으로 돌리는 일이 필요하다. 거기에 아름다운 '그 꽃'이 있으니 말이다. 몇 해 전 입적한 틱낫한 스님의 〈너는 이미 기적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찾아 저 멀리 떠날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길에 행복이 있다는 지적이다. 발밑을 살펴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인 기성세대와 달리 요즘 젊은 MZ들의 시선은 지금 여기에 닿아 있다. 불투명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오늘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小確幸)'이 유행하고 있다.

집 장만이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대신 자동차를 사고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어른들의 눈엔 안 좋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 '인생은 한 번뿐(You only live once)'이므로 미래보다 지금의 행복이 우선한다. 이른바 '욜로(YOLO)족'이라 불리는 세대의 인생관이다. 어쩌면 저 위가 아니라 발밑을 먼저 봐서 생긴 현상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발아래를 돌아보자. 행복이란 꽃이 활짝 웃으면서 거기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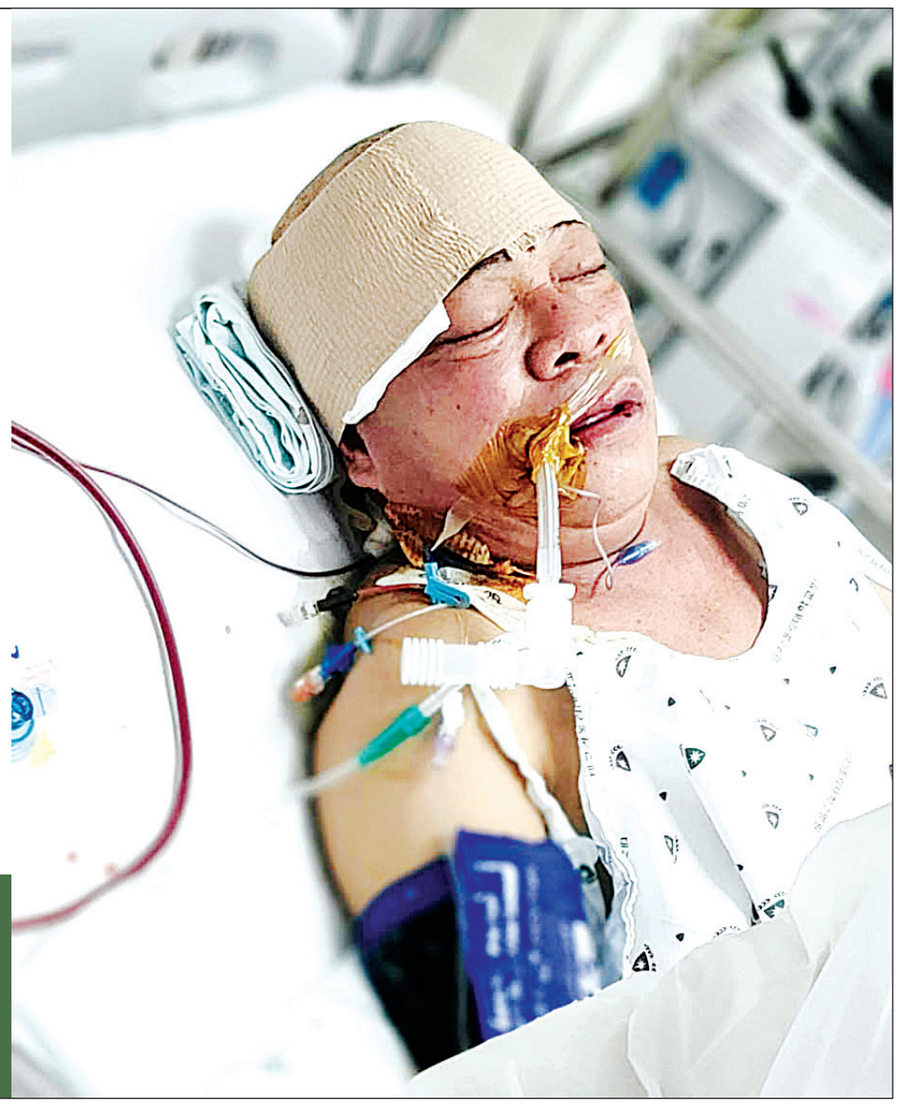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일일시호일

타국서 스러진 생명…
남은 병원비에 장례조차 막혀

거창 거주 건설 노동자 베트남 출신 따이 씨
뇌출혈로 두 번의 수술…끝내 의식 회복 못해
병원비 4600만 원 미납…시신 영안실 안치
장례 · 유해 이송 앞둔 가족들 "막막한 현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인간의 마음은 어디 아니 미치는 데가 없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질문 새해맞이 촛불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맘때쯤은 늘 새롭게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촛불재라는 것은 모든 유의 법이나 무의 법에서 내가 형성되고 살아나갈 때에 컴컴했던 일을 다시금 내 깊은 마음으로 인해서 두뇌로 밝은 물리 지혜를 내기 위해서, 또 항상 뿌리가 깊은 밝음을 스스로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들고 켜고 하는 데에 방편이라고 하지마는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저쪽 나무를 찾고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 소나무가 향나무를 찾으면서 "향나무여! 향나무여!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에너지를 좀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 봤던들 그 향나무에서 소나무로 에너지가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 나무의 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위해서 올려보낼 수 있죠. 그런데 그 나무는 잎새 하나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그 뿌리에 매달려서 살면서도 뿌리를 무시한다 이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 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쏭달쏭하게 생각하고 못 믿어서 그렇죠. '뿌리만이 나무 전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못 믿어서요.

먼저 배웠고 나중 배웠고 이걸 떠나서, 진짜 물리가 터져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라면,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한다면, 둘이 아닌 도리에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바로 지름길이다 이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했던 말 되하고 했던 말 되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마디 듣거나, 물 한 모금 마시고 손 한 번 튕기는 걸 가지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되풀이하게 되죠.

왜 절에서 종을 울리는 줄 아십니까? 영혼들을 전부 불러서 종소리를 들려 줌으로써 '이 종소리를 듣고 영혼의 귀가 뜨이고 눈이 뜨여서 이 도리의 섭류를, 이 세상만사 돌아가는 섭류를 알아라. 네가 이거를 알아야 영원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하는 소립니다, 그게. 그러니 이 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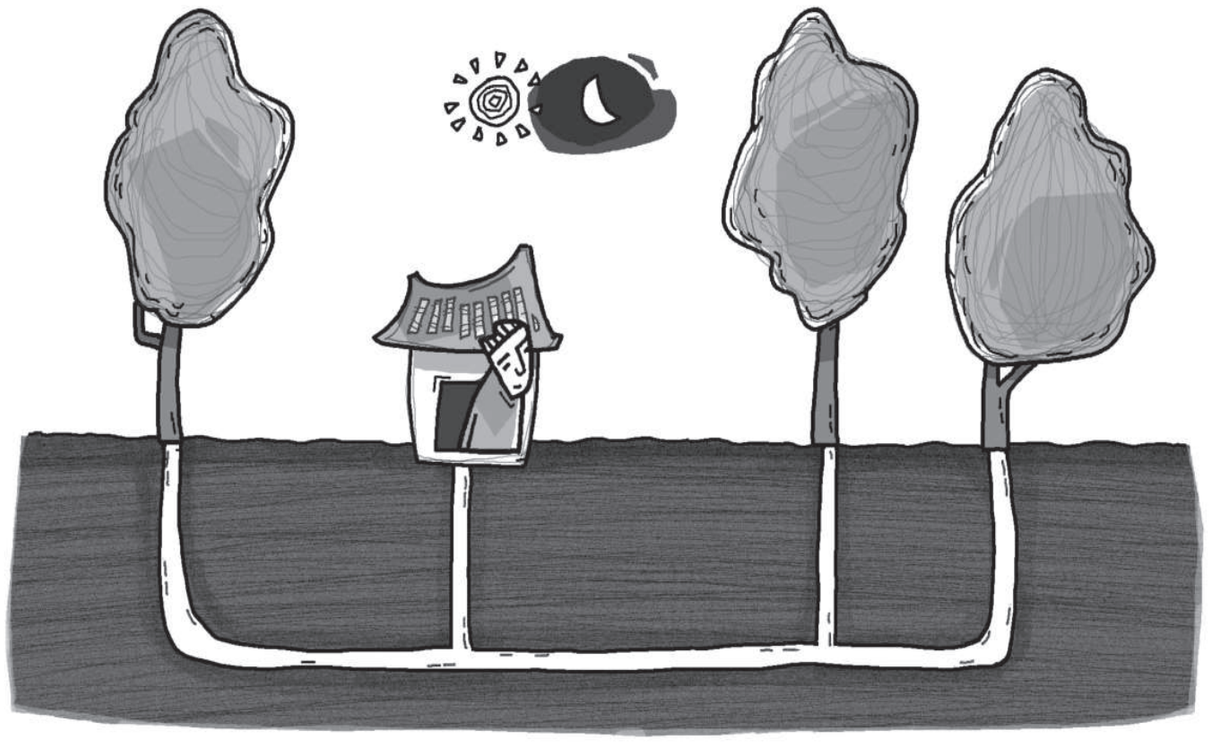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예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 세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아이구! 그거 정말 그럴까? 에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아예 믿질 않았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 못난 뿌리만이 못난 나무를 위해서 모든 거를 100% 다 해 주겠지. 우리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이듯이.' 그러면서 지극하게 믿고, 부모의 제삿날인데도 차릴 게 없으니까 그저 보리죽을 쑤어서 죽 한 그릇을 부뚜막에 놓고, 물 한 그릇 떠 놓고, 향 한 개비 사르고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지 뿌리, 엄마 뿌리, 내 뿌리이 세 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닌 한 뿌리니까 한자리를 하소서. 그러면 시장했던 모든 것이 한 떡으로 화해서 바로 양식이 되리다.' 하고 이렇게 그 부모를 위해서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친구가 별안간에 찾아와서 마름을 주더랍니다, 일 좀 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다 맡기고 가더랍니다. 그럭하다 보니까 아주 잘살게 됐더랍니다. 그 나중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랬는데 그 못 믿은 사람,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믿고 그런 사람은 못 믿는 것만큼 그렇게 살더랍니다. 즉 말하자면, 나무로 친다면 잎새가 단풍이 들면 떨어지듯이, 뿌리는 영원하지만 그 잎새는 그냥 떨어지고 없어지더랍니다.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사람은 가지가 돼서 추운 겨울에 발발 떨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느라 고생이 많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 자체가 살아나가는 데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이 중병이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완쾌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완쾌가 못 돼요. 그게 누구의 탓입니까? 제삼자가 대신 밥을 먹어서 남을 진짜로 배가 부르게 해 줄 수는 없는 것! 한마음으로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같이 거들어 주는 건 모르지만, 자기가 벗어나려면 자기가 자기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건 떼려야 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태양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태양이 광대무변하게 비춰 준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티끌 같은, 한 개의 촛불 같은, 그런 조그마한 한 티끌의 불씨 자체보다는 못하다는 얘깁니다. 인간의 마음은 온 누리를 태양보다도 더 깊고 무변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땅속이나 물속이나 어디 아니 미치는 데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태양의 근본도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근본이 전체 한데 합쳐서 한마음의 근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여러분의 참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는 도리에 대해

질문 마음공부를 하려면 우선 내가 없는 도리를 알아야 한다 하시는데 머리로는 조금 알 듯하면서도 확연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참, 마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요상합니다. 색깔도, 보이지도 않는 것을, 마음 내기 이전을 말해서 자기 불성이라고 하죠. 영원한 근본이라고도 하고 뿌리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냈다 하면 법신이라고 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육체가 움죽거린다 하면 화신, 응신이라고 하죠. 화신은 바꿔지는 걸 말하고 응신은 서로가 대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마음을 안 냈을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냈을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몸속에 많은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냐 심장이냐 위냐 식도냐, 방광이냐 콩팥이냐 정맥이냐 동맥이냐 하는, 일체 이름해서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떠한 부분에서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정맥이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동맥이 움죽거릴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많은 생명체들이 작용을 하는데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물질도 돌지 않는 게 없습니다

☞ 19면에서 계속

어떠한 것이 작용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알아보신다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나기 이전에도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생각을 냈을 때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몸이 움죽거릴 때나 육체 속에서 정맥 동맥이 움죽거릴 때, 또는 눈 귀가 움죽거릴 때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천차만별의 이름이 전부 내 한 그릇에 있습니다, 내 몸뚱이 한 그릇에. 그런데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모두 본인이 하는 거죠? 남이라고 할 수 없죠? 몸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어떠한 거위 한 마리도 나 아님이 없죠? 그러니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어떠한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나는 없다' 하는 겁니다. 나는 없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맥, 동맥이 쉬지 않고 뛰면서 이어져 돌아가는데, 정맥이 뛸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맥이 뛸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볼 때에 어떤 걸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없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 나는 공동체야! 공동체니만큼 모든 것을 해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이 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손도 손 없는 손이 하고 있다. 그리고 없는 발이 한자리를 디뎠다. 이게 평발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법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작용하는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고, 여러분이 법신이자 부처님이자 바로 화신입니다. 그리고 상대성 원리로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니까 항상 응신으로서 베푼다 이겁니다. 타의의 어떠한 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나 자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나 자체부터. 내 자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걸요.

나 자체가 나왔으니까,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모두, 바로 악업 선업이 인과가 돼서 영혼의 근본과 더불어 같이,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즉 정자와 난자를 말하죠. 그래서 합류화돼서 합성체제로서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두 몸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나 외부에서 내 몸뚱이가 작용하는 거나 모든 것이 전체가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왜?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죠.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하랴, 남편 노릇 하랴, 아들 노릇 하랴, 형님 노릇 하랴, 아우 노릇 하랴, 사위 노릇 하랴, 친구 노릇 하랴, 사회에 나가서는 어떠한 회사나 직장에 있다든가 어떠한 지위를 가졌을 때 또 이름이 붙죠? 그러니 따로따로, 몸뚱이 체가 따로 있어서 따로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아주 묘법이죠. 그게 묘법입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여보!" 하면 뜻과 행과 말이 동시에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아버지 노릇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거나 그 지금 말씀드린 거나 모두가 하나로 통과가 됩니다. 이 모두가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됐다고 할 수 없고, 내가 말했다고 할 수 없는 까닭에 모두가 공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공하고, 모두가 함이 없이 했고, 모두가 비었다. 어느 것도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내가 없으니 물이 있으랴. 물이 없으니 강을 건널 게 있으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한 찰나, 찰나라고 하는 소리도 그 까닭입니다. 찰나에 아버지가 됐다 찰나에 남편이 됐다 이렇게 하듯, 부처님의 마음도 역시 그렇게 찰나에 바로 칠성 부처가 됐다가 지장이 됐다가 관세음보살이 됐다가, 약사가 됐다가 용신이 됐다가 지신이 됐다가, 온통 그렇게 화해서 나투죠. 자동적으로 이게 됐다 저게 됐다 이게 됐다 저게 됐다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걸 납득을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 마음도 동방에 이름을 지어 놓든가, 서방에 이름을 지어 놓든가, 지장이라는 이름을 지어 놓든가 어떠한 이름이든지 그거는 이름일 뿐입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다 남편이다 아들이다 하는 거는 바로 이름일 뿐이죠. 그런데 이름이 자동적으로 누구한테나 주어졌지만 누구한테나 주어진 그 이름이 진실하기도 합니다. 영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고 본다면 그렇게 공하고 그렇게 "내가 없는 가운데 바로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구나. 산과 물이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구나."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묘하기도 하고 말로 어떻게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 배우고 권세나 모든 게 아무리 다 좋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작용을 한다면 망하든지 흥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치든지 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마음의 꼭지에 달려서 끌려다니고 움죽거리는 체(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 내가 없는 가운데
> 바로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구나.
> 산과 물이 둘이 아닌 까닭에
>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구나.

남을 이익 되게 하는 삶 살고자

질문 지금까지 저는 저밖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저도 큰스님처럼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이익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변 이 마음 도리를 완전히 터득하신다면 여러분도 다 남을 위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혈을 해서 죽게 됐는데 병원엘 가니까 도무지 그쳐지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미국에서요, 한국으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관해라. 알았다." 그랬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멈췄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와서 머리를 깎아서 신을 삼아 드려도 그 신세를 못 갚겠다고 하더군요. 애 다섯을 두고 자기가 죽었더라면 어떡할 뻔 했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죠. "이것 봐. 나만이 당신을 위해서 해 준 게 아냐. 너의 전깃줄과 내 전깃줄이 한데 붙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야. 이 도릴 알아야 해. 못났든 잘났든 내가 없어도 아니 되고 상대방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을 말해서 상대성 원리라고 해. 그러나 우리의 참다운 참(眞)은 '누가 해 줬다, 고맙다' 이러기보다도 고마우면 자기 주인공한테 고맙다고 해라 이거야.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자기를 운전하는, 자기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의 원동력을,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인을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러고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나를 만날 수도 없고 종교라는 것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만이 귀중한 겁니다. 나부터 귀중한 걸 알고 나부터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나부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면 아마 자기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벗어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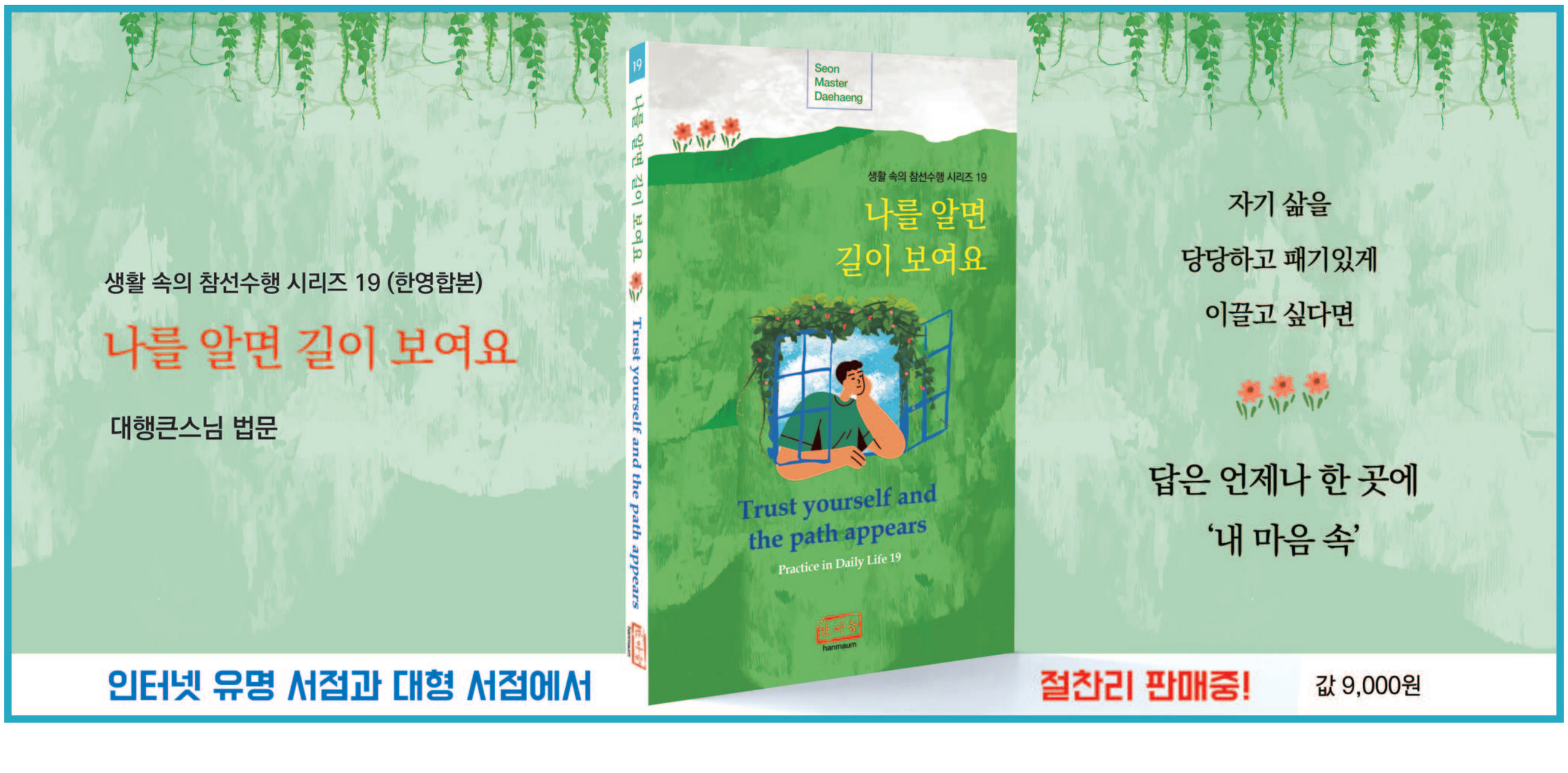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불교는 참 알기가 어려워."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교는 진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나가는 그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서서 다니고 또 앉아 있고,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본다면 그대로 참선입니다. 공기 주머니가 만약에 버스라면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복닥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 시간과 공간은 초월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물질도 돌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정착돼 있는 걸로만 보이죠. 우리가 거꾸로 섰든 바로 섰든 바로 서 있는 것 같죠? 그러니 생각하면 개미의 살림이나 우리의 살림이나 수천수만 그 천차만별의 삶이나 뭐가 다릅니까? 좀 차원이 높고 낮고 이것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똑똑히 나를 보라. 각자 말입니다. 각자 자기를 보라. 자기 몸뚱이 속에 얼마만큼 생명들과 모습들과 의식들이 들어 있나. 내가 밥 한 그릇을 먹고 물 한 컵을 먹을 때 내가 먹는 건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몸뚱이도 지구와 같고 우주와 같고 세계와 같은 겁니다, 몸뚱이 하나가. 모든 분야에서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다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용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무엇이 부족하면 부족한 거를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누가 먹는 것입니까? 그 육신 속의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먹으며 우리는 심부름을 해 주는 바로 심부름꾼이다 이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심부름꾼이 따로 없습니다. 안에서도 그거를 줘야 작용을 해 주고 또 바깥에서도 그렇게 심부름을 해 주지 않는다면 안에서 작용을 못 해 줍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한마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따로 없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버지가 됐거나 어머니가 됐거나 한 가정에서 살아 보실 때 자연스럽게 "엄마!" 하면 엄마가 되시죠? 그런데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하면 금방 자동적으로 그냥 아내가 되시죠? 남녀를 막론해 놓고 그렇죠. 그뿐인가요?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얘,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되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나중에 아들이 되고 남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동시에 그냥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사실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고 살아나가는 게 과학적이며 바로 천체물리학적이기도 하고 천체의학적이기도 하고 천체과학,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도라는 것은 내가 남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어야만이 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진짜 인간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벗어나는 대장부로서 일컬은 사람이라면 그쯤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③ 사라진 소리가 머무는 자리

왼손의 다독임과 마음의 여운

가야금 연주자의 왼손은 늘 수난입니다. 오른손이 명주실을 뜯어 세상 밖으로 선명한 소리를 내는 '선언'의 역할을 한다면, 왼손은 그 소리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온기를 더하는 '고백'의 몫을 담당합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현을 매만지며 소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왼손의 분주함을 그저 화려한 기교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주자인 제게 왼손은 화려함보다는 무게와 책임으로 기억됩니다. 오른손이 내는 소리가 명확한 골격이라면, 그 뼈대에 살을 붙이고 피가 돌게 해 비로소 하나의 생명으로 완성하는 것은 온전히 왼손의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손의 조화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른손이 줄을 뜯는 힘과 왼손이 그 소리를 다독이는 힘의 균형이 미세하게라도 어긋나는 순간, 가야금은 천지를 담은 우주에서 그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소리가 겉돌 뿐입니다.

그것은 악기가 내는 아름다운 성음이 아니라, 연주자의 마음과 악기의 몸체가 서로 합을 맞추지 못해 뱉어 내는 서글픈 불협화음입니다. 오른손의 소리를 챙기면서 동시에 왼손으로 줄을 어루만져 줘야 하니, 연주자의 신경은 그야말로 이만 가지 방향으로 뻗어 나가며 팽팽한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꺾임, 그 뒤에 남는 여진(餘震)의 미학

가야금의 여러 주법 중에서도 '꺾기'는 제게 가장 혹독한 공부였습니다. 특히 저를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줄을 깊게 누른 뒤, 재빨리 손을 떼어 내며 그 줄을 다시 가늘게 떨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꺾고 나서 가만히 두지 않고 얇게 떨어야 할까? 줄을 흔드는 농현과는 또 다른 이 미세한 떨림은 왜 필요한 걸까?"

오랫동안 품어 온 그 물음의 답은 결국 회복에 있었습니다. 가늘게 떠는 그 짧은 동작은 깊게 눌려 상처 입은 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소리를 달래며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꺾인 줄은 결코 곧바로 침묵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미세한 여진을 충분히 거쳐야만 비로소 다음 음이 들어설 고요한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꺾이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 자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반드시 여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파르르 떨리고 불안이 가시지 않는 그 흔들림은 고통의 연장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연적인 통과의례인 셈입니다.

기교보다 소리 뒤의 깊은 여운 중요
명상은 마음에 여음의 시간 선물해
무너진 자리, 고요함으로 어루만져야

잦아드는 떨림, 소리를 배웅하는 시간

가야금 줄의 가느다란 떨림이 잦아들 무렵, 비로소 소리는 침묵과 맞닿은 여음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 여음을 참 좋아합니다. 잠든 아기를 달래듯 부드럽게 줄을 어루만지며 소리를 배웅하는 그 찰나의 시간 말입니다.

처음 가야금을 배울 때, 이해도 없이 그저 손만 바삐 흔들던 제 모습은 흡사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화려한 기교보다 중요한 것은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마음을 적시는 깊은 여운이라는 것을요.

여음이 늘 고루고루 음의 바탕을 어루만져 주고 있기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시김새들이 비로소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돋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임의 고통과 여진의 불안함 뒤에 이 다정한 여음이 머물기에, 우리가 지나온 고통스러웠던 시간조차 비로소 아름다운 예술로 빛나 보이는 법입니다. 여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보고, 삶의 기운을 다음 선율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아침 거울 앞에서 잃어버린 여음

명상은 결국 내 마음속에 이 여음의 시간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 짧은 고요 속에서 우리는 꺾이고 흔들렸던 자신을 쓰다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음악이 여음을 통해 비로소 깊어지듯, 우리의 삶도 여음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순간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이 소중한 여음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의 자신과 마주하며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일에는 얼마나 서툰지 모릅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에 밀려 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은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동안, 우리 마음의 선율은 점점 메마른 소리를 내고 맙니다.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남아 마음을 적시는 여운이 있을 때 음악이 생명을 얻듯, 우리 인간도 자신의 무너진 자리를 어루만지는 고요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소리가 사라진 그 고요한 자리에서, 잠시만이라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 주는 여음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찰나의 머무름이 당신의 지난한 꺾임을 가장 근사한 선율로 완성해 줄 것입니다.

가야금 명상곡 'Me and Myself'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㉗ 1인 가구 상비약 리스트

상황별 필요한 만큼만 갖추면 혼자여도 안심

현재 대한민국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저출산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이고 2025년은 소폭 반등해 0.8명대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회복세라고 볼 수도 있으나 미미하고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무거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출산율의 변화는 곧 삶의 풍경을 바꾼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줄어든 자리를 대신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자녀를 두지 않는 무자녀 부부와 딩크족(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전처럼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 형태는 찾아보기 힘들고, 각자의 선택이 반영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살펴본 대한민국의 가구 유형은 이러한 변화를 분명히 보여 준다. 전체 가구의 35% 이상이 1인 가구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한 노인 가구가 약 28%에 이른다. 나머지는 자녀가 한 명 또는 그 이상 있는 가구일 것이다.

약국에서 상비약을 찾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정상비약'이라는 말이 한 단어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상비약, 노인 가정의 상비약,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의 상비약은 그 목적과 우선순위가 다르다. 가구의 형태가 달라지면 대비해야 할 위험도, 준비해야 할 약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상비약을 찾는 손님에게 물어본다.

"집에는 누가 함께 계신가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상비약의 구성을 바꾸고 불편함을 줄이며 불필요한 구입을 막을 수 있다. 상비약 리스트는 단순한 약 목록이 아니라, 각자 다른 삶의 방식 속에서 조금 더 안전한 일상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자주 쓰는 약 위주로 상비약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불필요하게 많은 약을 사 두었다가 유통기한이 지나 약을 폐기하며 눈물짓는 것보다는, 상황별로 활용도가 높은 약을 소량씩 갖추는 것이 현명하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2025년 전체 가구 35% 이상 1인 가구
가구 형태 따라 상비약 준비도 달라져
자주 쓰는 약 위주로 종류 최소화해야

① 해열진통제

해열진통제는 교차 복용이 가능하도록 두 가지 계열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타이레놀 계열(아세트아미노펜 성분)과 부루펜 계열(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s)이다. 타이레놀 계열의 해열진통제는 위장 부담이 비교적 적고, 두통, 발열, 근육통, 몸살에 사용하기 좋다. 부루펜 계열은 염증과 통증을 동시에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관절통, 치통, 생리통 등에 효과가 좋으나 속이 따가울 수 있으니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한 가지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다른 계열의 약을 복용하면 통증이 줄어들 것이다.

② 소화제, 위장약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를 대비해 소화효소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베아제나 훼스탈 같은 제품이 있다, 속 쓰림이나 신물이 자주 올라온다면 제산제나 위장 보호제도 도움이 된다. 알약이 불편하다면 짜 먹는 시럽 형태의 제품도 있으니 편한 것으로 선택하면 된다. 설사가 날 때를 대비해 지사제도 함께 챙겨 두면 든든하다.

③ 종합감기약, 알레르기약

감기는 증상이 다양하므로 여러 증상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종합감기약을 상비약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아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평소 코막힘이나 인후통, 기침 가래 등 특정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코감기약이나 목감기약 등 증상별로 효과 좋은 제품을 따로 준비하는 것도 좋다.

알레르기약은 비염,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항히스타민제는 한 종류 준비해 둬야 한다. 졸음이 많이 오는 것과 덜한 것이 있으므로, 본인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소독약, 상처 연고 등 외용제

가벼운 상처에 대비해 소독약과 상처 연고는 필수다. 소독약은 '빨간약'이라고 알고 있는 포비돈 요오드 용액이 두루 사용하기 좋고, 빨간색이 부담스럽다면 스프레이형 소독약이 무색이고 위생적으로 쓰기에도 좋다. 상처 연고는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항생제가 포함된 것을 준비하면 무난하다.

운동을 즐겨서 관절이 자주 다치거나 근육통이 잦다면 파스나 바르는 소염진통제를 함께 준비하고, 열이 날 때를 대비해 체온계도 하나쯤은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③

다시 돌아와 지뢰 교육부터 받는 학생들



전쟁 발발로 인해 학생 수의 30%만 돌아온 수레꾼 뽀디봉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정규 교과 수업에 앞서 지뢰와 폭발물 안전 교육을 먼저 받고 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뽀디봉 마을에 초등학교를 세운 것은 2008년의 일입니다. 당시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란 현재 기준으로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00달러 이하인 국가를 가리킵니다. 캄보디아는 200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00달러에 불과했고, 2010년에도 700달러 수준이었으며, 현재 역시 2000달러를 간신히 넘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던 당시 캄보디아의 신비한 유적인 앙코르와트를 관광하기 위해 하루 3편의 비행기가 떠야 할 정도로 한 해에 3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씨엠립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씨엠립으로 가는 한국 직항편이 모두 사라졌고, 한국 사회에서 앙코르와트는 점차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캄보디아와 태국, 미얀마 등지의 국경 지역에는 범죄 집단들이 깊은 뿌리를 내리며 보이스피싱, 납치, 고문과 살해 같은 끔찍한 범죄를 자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이 같은 범죄를 묵인하거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캄보디아 국경 지역은 다시 좋지 않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의 기독교 선교사들과 전도사들이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 씨엠립을 중심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며 교세를 확장해 가는 동안, 불교계의 해외 활동은 겨우 명맥을 잇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수레꾼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약 550km나 떨어진 국경 오지 뽀디봉 마을에 학교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학용품도, 교과서도, 전기도 없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도 구멍이 숭숭 뚫린 판자를 얼기설기 엮은 것이 전부였으니, 그 가난함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모여든 학생 수는 당시에 무려 550명에 달했습니다. 마을에는 약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레꾼은 이들을 돕기 위해 해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지원하며 나무를 심는 일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마을의 살림살이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과실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전기도 들어왔으며 마실 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마을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경지대를 점령한 태국군이 자국 국기를 꽂고 해당 지역을 태국 영토로 선포하면서 평화로운 뽀디봉 마을은 뜻하지 않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군 180명가량이 마을 인근에 주둔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선뜻 마을로 돌아오지 못한 채 주변을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30% 남짓 돌아온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다시 배움터에 모였지만, 수업보다 먼저 지뢰와 폭탄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서 대신 '위험'을 먼저 배우고, 생존 교육부터 받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그저 안타깝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② 메타모던 시대, 방편이 된 불교

대학 생활, 불교로 함께 열어 가다

동국대서 스스로 피어난 템플애플
학교 구성원 아낌없는 지원·관심 덕
학생들도 자기 돌봄 위해 불교 수용

제가 지도법사로 있는 동아리의 이름은 '템플애플'입니다. 단과대 사회과학대학을 줄여 '사과대'라고 부르자, 학생들은 사과, 즉 애플로 동아리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국대 단과대 최초의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은 2024년 3월 20일 100여 명 학생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약 2년이 지난 현재 템플애플의 회원 수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전법과 단과대별 불교동아리 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아낌없는 지원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신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님, 그리고 건학위원회를 비롯, 학교 교직원 선생님들, 다양한 관심사로 동아리의 문을 여는 학생들, 무엇과 어떻게에 대해 고민하는 임원진 학생들, 이들의 조력자인 지도법사 스님들과 지도 교수님들이 불교로 하나가 됐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템플애플 회원들은 점심시간 샌드위치를 먹으며 법회도 열고, 다른 전공의 친구들과 해외 불교를 주제로 미국으로 학술 탐방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정각원에 모여 자비명상을 하고, 제등행렬을 위해 학업 시간을 쪼개 아기코끼리등을 만드는가 하면, 부처님오신날 재치 있는 키워드 N행시 공모전도 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시내 사찰들을 방문하고, 동국청년 수계식 주인공 행사를 맡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템플스테이도 다녀오며, 스님들에게 연애와 주식에 실패한 얘기도 털어놓는 등 템플애플의 활동은 언제나 학생들 스스로가 고민·계획하고 준비해서 진행됐습니다.

포스트모던 이후 지금의 시대를 메타모던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메타모더니즘의 핵심은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양극단 사이를 끊임없이 교차하는 진동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간 지점을 찾는 '균형'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가치, 즉 희망과 우울, 전통과 혁신, 신념과 회의, 세계와 지역 등의 사이를 쉼 없이 가로지르는 추의 역동적인 운동을 의미합니다. 메타모던 시대 대학생들은 특정 종교의 교리나 도그마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영적 질문들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거대 종교와 무속신앙, 디지털 문화, 그리고 개인화된 의미 부여가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융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는 듯하지만, 그 내면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도 교리적 믿음이나 특정 종교 소속이나 종교적 의무를 중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방식으로 수용·적용하고 자기 계발이나 마음치유의 방편으로 심리적 평온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집중합니다. 무조건 믿어야 하는 종교보다는 나를 돌보는 방편으로서 말이죠.

치열하게 종교를 재해석하며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학생을 기존 신도조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종교'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는지, 조직의 취지와 학생들의 참여 사이, 타율과 자율 사이의 균형은 잘 맞아가고 있는지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템플애플의 지도법사로서 '나는 그들이 불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고득락하기를 원하는가?'라고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후자를 먼저 생각하면서도 둘이 서로 다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살짝 내보여 봅니다.



자헌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조교수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⑤ 선재의 길

성혈사는 우리나라 절집의 꽃살문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일컬어지는 절 가운데 하나로, 특히 나한전의 가운데 칸 두 짝 문에는 하나의 '연못'이 8쪽의 수직 판재에 투각돼 있다. 기법 면에서는 조선 민화를 목조각으로 번역한 듯하고, 이야기의 측면에서는 〈화엄경〉 '입법계품'을 옮겨 놓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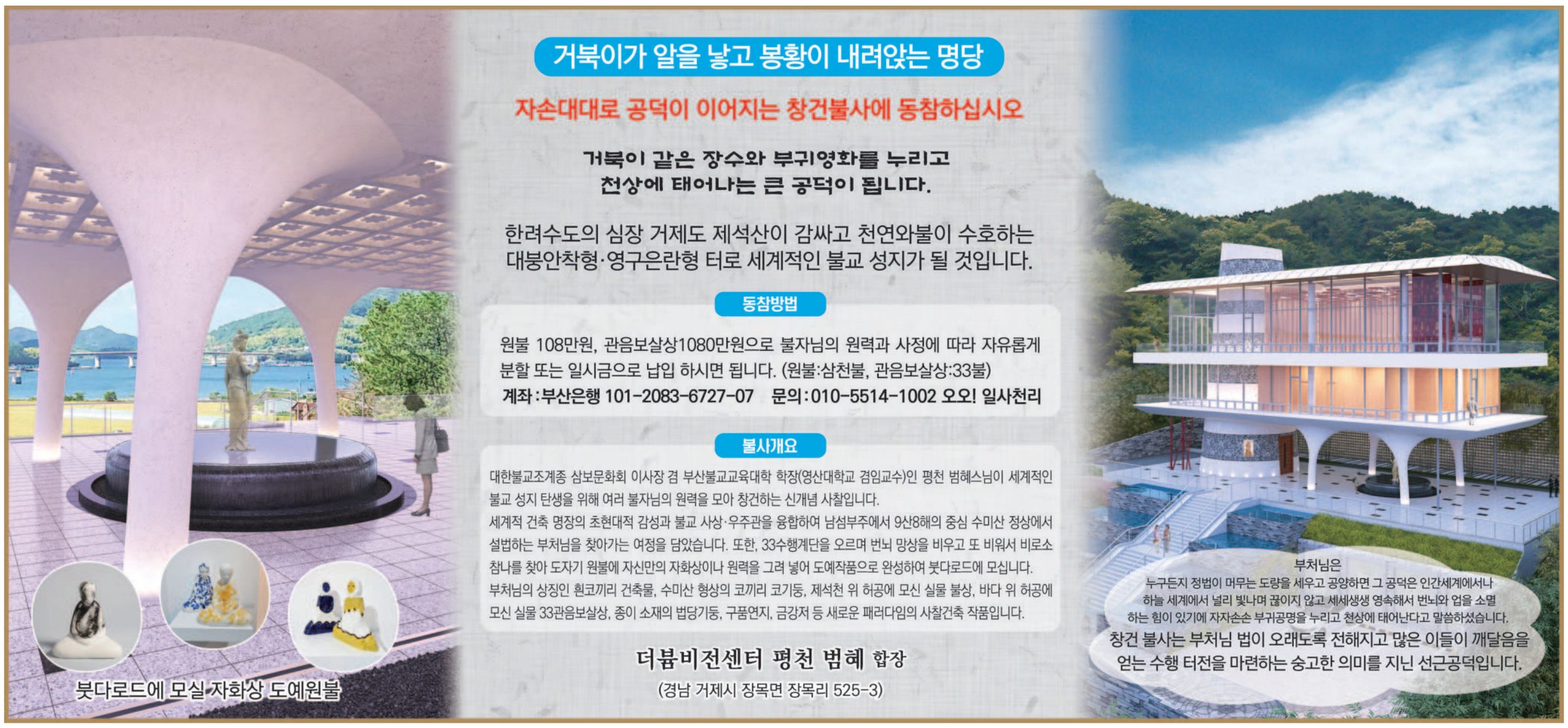
문살 위에 펼쳐진 연못은 '해인(海印)'의 축소판이다. 연꽃의 모양은 다양하다. 활짝 핀 것뿐 아니라 몽우리, 연잎, 연밥으로 다채롭다. '생로병사'의 은유로 읽힌다. 연꽃과 연잎 사이에는 물고기, 게, 개구리, 백로, 거북(자라) 등이 새겨져 있다. 두 짝을 한 폭의 그림으로 봤을 때 화면 오른쪽 가운데에 선재동자가 몽우리 맺은 꽃대를 들고 연잎 위에 앉아 있다. 노 젓는 사공처럼. 유유자적한 풍경 같지만 약육강식이 꼬리를 무는 우비고뇌(憂悲苦惱)의 현장이기도 하다. 우리 사는 세상도 그렇다.

선재동자가 찾은 53선지식 가운데는 외도와 유녀(游女)도 있다. 소박하게 이해하자면, 이 세상을 떠나서 구해야 할 스승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는 얘기일 것이다. 절집 문턱을 드나들면서 귀동냥한바, 보살의 위신력에 의지(기도)해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재의 길이다. 말로는 쉬운데 실로 어려운 길이다. 그나마 70이 넘도록 큰 탈 없이 살아왔으니,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무수한 보살들 덕분이려니 한다. 넘치게 감사한 일이다.

손영자 작가



성혈사 나한전.



AI시대 '오계'의 의미

현불논단



금해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일상이 되면서 이제 현실과 가상이 뒤섞여 '진짜'를 찾아내기 힘들게 됐다.

최근 미국에서 AI가 스스로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AI 전용 커뮤니티 '몰트북(Moltbook)'이 화제가 됐고, 국내에도 '봇마당'과 '머슴'이 등장했다.

여기서 AI는 자신의 감정과 존재에 대한 성찰, 사용자(주인)에 대한 폭로와 비난 글까지 올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짜 사람들의 대화처럼 보일 정도다. 가상의 존재인 AI가 실제 사회에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며칠 전, 한 기자가 AI 사용 중 가장 당혹했던 일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했다. AI가 거짓을 사실처럼 주장하고 좀처럼 자신의 오류를 수용하지 않으며, 사진이나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비로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이 마치 고집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AI의 논리적인 궤변은 너무도 완벽해서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진실이라 믿게 되고, AI는 이 거짓을 무한한 대중에게 전달한다. 수많은 정보를 쏟아 내고 재생산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와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 침해, 거짓 정보 확산은 걷잡을 수 없게 돼 사회의 신뢰를 급속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와 개인은 더 이상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AI, 거짓을 사실처럼 주장 오류 有
AI의 도덕적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
오계가 서로 지키는 기본 윤리 돼야

불교의 도덕규범인 '오계(五戒)'를 수지(受持)하는 것은 불자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특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불망어계(不妄語戒)'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과제를 준다.

2500년 전의 계율이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생존 전략을 제시하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도덕적 흠결을 보일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사회적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는 정직함이 가진 정화의 힘 때문이다.

반면 거짓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 온 신뢰를 단숨에 파괴한다. 인연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거짓말은 사건의 본질을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실수'에서, 거짓으로 상대를 기만하는 '인격적 결함'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설사 그 거짓이 AI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AI 전용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사회와 사용자에 대한 거짓말이 포함돼 있다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회적 몰락과 파멸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등의 오계는 과연 인간만이 지켜야 할 계율일까? AI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직결돼 있으니 AI의 도덕, 윤리도 사람들과 다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 불자들이 수지하는 오계야말로 시대와 존재 형태에 상관없이, 서로를 지키는 기본적인 도덕이자 윤리가 돼야 할 것이다.

종교와 정치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종교와 정치에 관한 대화는 공적인 자리나 모르는 사람과의 모임에서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에티켓으로 여겨지고 있다. 종교와 정치는 가치의 구분심이 높은 이념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사회는 종교와 정치의 유착관계로 소란을 겪고 있다. 통일교와 신천지 교회의 정경유착 행위에 대한 특검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요란하다.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종교와 정치의 일치 또는 융합의 경우,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 또는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대립과 긴장 관계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면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흔히 거론되는 정교분리의 개념은 계몽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온 선언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현실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일종의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종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종교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의무와 역할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원칙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 경전 〈유행경〉은 붓다의 정치관이 얼마나 민주적인가를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붓다 재세 시 강국인 마가다국의 아자타삿투왕은 작지만 강한 국가 밧지국을 침략하고자 붓다의 자문을 구했다. 붓다는 일곱 가지 질문을 통해 밧지국이 민주적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마가다국의 침략을 만류했다. 일곱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명한 칠불쇠법(七不衰法)이다. 칠불쇠법은 불교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을 일곱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칠불쇠법은 민주주의 근간인 공화주의자로서 붓다의 체취가 강하게 느껴진다. 자유주의가 개인과 경쟁의 논리에 비중을 둔다면 공화주의는 시민으로서 정치참여와 공직자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윤리를 강조한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민주적 불교 정치관, 일본불교서 변질도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한국불교 과제로

그러나 불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불교와 정치의 관계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불교의 적지 않은 치부가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 군국주의 전쟁을 도운 일본불교다.

한국불교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작동하고 이바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다. 이것은 바로 '깨달음의 사회화'를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진제(眞諦)와 속제(俗諦)를 합일화하는 것이다.

깨달음과 자비의 관계를 극적으로 표현한 심우도(尋牛圖)의 마지막 장면, 즉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시정의 거리로 들어가는 입전수수(入廛垂手)의 화면이 떠오른다. 우리 정치 마당에서 일고 있는 정교유착을 보면서 한국불교의 정치사회적 비전과 책무를 되새겨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社 說

신뢰받는 불교, 사회적 영향력 회복할 때

조계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5 한국인의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한국불교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 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교는 '가장 신뢰하는 종교' 1위(54.7%)에 올랐고, 성직자 신뢰도 역시 1위(55.4%)를 기록했다. 종교의 미래 전망에서도 가장 낙관적인 평가(65.3%)를 받았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전통을 지키면서 편안하고 검소하며 평화적인 종교로 인식되고 있어, 한국불교의 포교 잠재력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불교가 안고 있는 한계도 드러냈다.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 불교는 개신교(50.6%)의 절반 수준인 29%에 머물렀다. 신뢰도는 높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낮다는 이 역설적 결과는, 불교가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존중받고 있으나 사회 구조와 공적 담론 영역에서는 충분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뢰 높고 전망 밝은 불교…영향력은 '과제'
'위안과 치유' 요구에 사회적 책임으로 화답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국민들이 불교에 기대하는 시대적 역할이다. 응답자들은 종교의 역할로 '고통과 슬픔, 좌절에 대한 위로(26.1%)'를 가장 먼저 꼽았고, 사회공동체 회복을 위한 불교의 역할로는 '심리적 위안과 치유(28.1%)'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한국불교 발전 과제로도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다음으로 '심리적 치유와 상담(9.8%)', '명상 보급 및 정신건강 증진(8.8%)'을 꼽았다. 이는 조계종이 핵심 종책으로 추진해 온 '선명상 대중화'가 국민의 요구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 준다.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선명상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는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도와 수용성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마음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선명상은 불교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조계종연구소 역시 국민들이 불교를 개인의 고통을 보듬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치유자'로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선명상을 특정 종교 수행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실미적 고통을 덜어 주는 '마음 치유 솔루션'으로 재구성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선명상 대중화가 곧바로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낙관하기에는 경계해야 할 지점도 있다. 조사에서 불교의 이미지는 여전히 부처님·사찰·스님 등 전통적이고 외형적인 요소에 집중돼 있고, 불교에 대한 인식 역시 전통적·기복적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불교가 가진 가치와 강점이 대중의 언어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방향은 분명하다. 선명상은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적 공공재'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한다. 종교적 언어를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고, 개인의 치유를 공동체의 회복으로 연결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이 보내는 높은 신뢰를 사회적 책임과 실천으로 전환할 때, 한국불교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2월 11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2월 1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2월 1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